

주인공 ; 기도하니?

처 ; (잠깐 있다가 고개를 드는데 눈에 눈물이 젖어있다)

주인공 ; 너는 인정많은건 좋지만 너무 감상적인게 탈이야.

처 ;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만이라도 함께 해주는것 외엔 방법이 없잖아?!

주인공 ; (뭔가 거대한 벽을 느끼듯 허탈하게 말한다)

그렇지...!

나도 마음이 답답해! (잠시 침묵이 흐른다)

주인공 ; 뭐좀 먹을래?

처 ; (고개를 흔든다)

(그때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환자 하나가 실려 들어온다. 곁에는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따라온다. 아줌마도 한사람 따라온다. 환자는 무언가 말을하려고 신음소리를 내며 손을 휘젓는다.)

주인공 ; (바라보다가) 마, 뭐좀 마시고 올께. 목이탄다.

(재갈물린 환자를 보며 응급실 밖으로 나간다. 복도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내, 아까 앉았던 길다란 의자에 앉아서 마신다. 쏘수같은 아줌마는 그때까지 앉아있다. 조금있다가 입에 재갈문 환자와 같이 왔던 아저씨가 밖으로 나와서 의자에 앉고, 자리에 앉자마자 담배를 뽕뽕 피워댄다.)

아정씨 ; (혼자말하듯이 담배를 피워대며)

빌어먹을 놈 돼질라고 헛바닥을 깨물어 싸!

(그때 쏘수같은 아줌마가 또 끼어들다)

쏘 수 ; 혀를 깨물었어요?

아저씨 ; (돌아보더니 대꾸하고 싶지도 않은듯 담배만 뽕뽕 피운다)

쏘 수 ; 잘라졌대요?

아저씨 ; (담배를 한가치 더 꺼내 이어 피운다)

모르겠소! 잘라졌는가, 붙어있는가!

쏘 수 ; 헛바닥 잘라지면 죽는다던데, 어찌다 그랬대요?

아정씨 ; (돌아보더니 대꾸하기 싫다는듯 옆자리로 옮겨 앉아서 담배만 뽕뽕 빨아댄다)

(그때 응급실에 같이 들어왔던 아줌마가 나와서 아저씨 옆에 가서 앉는다)

아줌마 ; 아침까지는 내동 괜찮더니 밖에서 무슨일이 있었대요?

아저씨 ; 무슨일은 무슨일!

미친놈이 부부삼혀고 지승길에 못이겨 저지랄했지!

아줌마 ; 가정불화가 심했나보죠?

아저씨 ; 가정불화는 뭘 가정불화요?!

언제부턴가 마누라가 교회에 미쳐갔꼬 돌아다니는걸 뭐라고 했더니 한번만 더 뭐라고하면 애까정 데불고 나간다고해서 병어리 냉가슴알듯 암말도 못혀고 있는디...

아줌마 ; 그래서요?

아저씨 ; 올 시월에 세상이 망하고 자기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황설수설해대서 뭐라고 한마디 했당께...

아줌마 ; 어머 저런! 구원파에 걸렸구먼!

아저씨 ; 구원파지 뭘지, 오늘 들어와 봉께,  
전세금혈려고 뽕뽕지게 모아논 돈허구, 애까정 데불고 나가  
버렸다지 안것소!

아줌마 ; 어머 저절어께. 그건 이단인데...!

아저씨 ; 이단이고 삼단이고, 그뻬이 미친뻬이지!

(주인공이 이야기를 듣다가 답답한듯 복도로 나가 정문밖으로 나간다. 한숨을 쉬며 하늘을 쳐다보니 건물마다 교회 십자가에 불이 밝다.)

[끝]

박 상 배

#1 호화찬란한 도시 유흥가의 모습.

(불야성 스텐드빠, 황태자 스텐드빠 등 스텐드빠, 룸싸롱, 카페 등의 네온사인이 번쩍인다. 한쪽 1층에 암소한마리라는 갈비집이 보이고 창으로 보이는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비를 먹고있다. 허름한 노동자 차림의 두사람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

노동자1 ; 카! 냄새 직이네!

우린 언제 이런데서 묵어볼꼬?

노동자2 ; 냄새가 황새 좇아갈라든 가랭이가 쪼개지는 뱀이여!

노동자1 ; 그라든 우리가 뱀새가?

저 안에 웬 황새가 저리 많노?

(그때 암소한마리에서 뚱뚱한 중년 2명이 이를 쭈시며 거들먹거리며 나온다.)

노동자1 ; 저게 돼지지, 황새가?

노동자2 ; 비만증 걸린 황새어!

노동자1 ; 문둥이 같은 자숙,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것좀 보래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들을 가리킨다.)

노동자1 ; 똑같은 우리나라데 와이리 다르노?

노동자2 ; 뭘, 야그어?

노동자1 ; 닭장같은 우리 하숙방하고 말이다.

노동자2 ; 황새는 닭장에서 못사는 뱀이여!

(갈비집 옆에 커다란 불야성 스텐드빠가 있고 그 앞에 큰 입간판이 놓여있다. 000원에인들이 나온다는 광고이다. 그 옆쪽에는 웨이터가 손님 호객을 하고 있다.)

(노동자1이 얼핏 광고간판을 보고 노동자2를 잡아끈다.)

노동자1 ; 이것좀 보그라!

웨이터 ; 어서옵쇼! (웨이터가 손님인줄 알고 인사를 한다.)

노동자1 ; 이게 누고? 김안선 아이가?

노동자2 ; 그렇게 심형내도 나오는데!

(들어가지 않고 광고판 앞에서 얼쩡거리자 웨이터가 인상을 쓴다)

웨이터 ; 손님들! 술 드시러 오셨습니까?

(노동자2가 돌아본다.)

노동자2 ; 아니디요. 그냥 구경 좀...

웨이터 ; (두사람을 밀어내며) 그럼 좀 비켜주세요!

(그때 양복을 빼입은 손님 셋이 들어간다) 어서옵쇼!

(밀려난 두명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얼굴이 굳어진다.)

노동자1 ; 내참 드립바서! 가자!

(가는 뒷모습으로 대사가 들린다)

노동자2 ; 우리도 월급타면 큰맘먹고 폼잡고 오는기라!

노동자2 ; 비쌀텐디.

노동자1 ; 문둥이 같은 자숙,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났나?

#2 공장

(150명 정도의 소규모 공장이 보이고 프레스등이 있는 공장내부에 사람들이 도열해 있고 조그마한 나무상자위에 살이썩은 사장이 올라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장 ; 요즘같은 시대에 생산직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나라의 애국자요, 보배입니다. 특히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이자 월급날이니 들뜬마음으로 아차 실수해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나라의 손실이니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일이 있으면 어느때라도 찾아오십시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들 흠뻑 들어간다.)

(노동자1과 노동자2가 일을하며 얘기를 나눈다.)

노동자1 ; 뭐라꼬? 나라의 손실이니 사고 조심 하라꼬?

하이고! 고양이 쥐 생각하네!

노동자2 ; 배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안되는거여.

노동자1 ; 그럼 너는 사장이 우리몸 생각해서 말했다고 믿나?

노동자2 ; 그렇게 아녀.

노동자1 ; 그럼 뭐꼬?

노동자2 ; 나라의 손실이란 야그는 맞는 야그지!

노동자1 ; 하이고! 실업자가 워메나 됐다꼬.

니하나 사고난다꼬 눈이나 하나 깜짝할줄 아나?

노동자2 ; 그런야그가 아니고, 하도 수입을 많이 해써서 밀가루가 남아돈다는디, 나가 라면이라도 하나 들 묵으면 손해아녀

노동자1 ; (쳐다보고 웃으며) 그래 그건 니말이 맞다.

#3 퇴근길

노동자1 ; 니 얼매땀노?

노동자2 ; 너하고 출근도 똑같이 험고 퇴근도 똑같이 험는데 별다를거 있겠나?!

노동자1 ; 그렇게? 한달 쇠빠지게 일한 댓가가 35만원이라...

이게 많은기가? 적은기가?

노동자2 ; 낸들아냐! 시계부랄모양 회사하고 자취방을 왔다갔다함께 세상물정을 알아야지!

노동자1 ; 맞다! 그러니까네 오늘 세상물정도 알겸 김안선도 볼겸 어뜨노?

노동자2 ; (김안선이 흔드는 장면을 생각하며)

좋은 야근디 그러다 생활비 날리면 워찌냐?

노동자1 ; 하이구 자숙, 소심해갔고. 이자숙아! 술한잔 묵는건데 10만원을 할끼가? 20만원을 할끼가?

둘이 딱 반끼이 하기로 하고 가자! (잡아끈다.)

#4 유흥가

(유흥가 골목의 암소한마리. 둘이계산대로 온다. 돈내고 나오며

노동자1이 노동자2를 툇치며 똥가 건네준다. 똥을 나서며 노동자1이 저들먹거리며 이를 썩신다.)

노동자2; 이는 식당에서 썩었는데 왜 또썩시라는 거여?

노동자1; 참! 막혀도 이리 막힐수 있나?

이를 썩시며 나와야 사람들이 갈비먹은줄 알거 아이가!

노동자2; (끄덕이며) 그건 그러! (저들먹거리며 이를 썩신다)

근디 너무 비싼거 아녀? 3만원이른 한달 부식빈디!

노동자1; 인자 시작인데 김새는소리하고 자빠짓네.

촌터내지 말고 이리와 봐라. (잡아끈다)

#5 불야성 스텐드빠 앞.

(스텐드빠 앞에서 일쥔거린다. 지난번의 그 웨이터가 또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둘이서 웨이터가 듣게 일부러 그 근처에 가서 얘기한다.)

노동자1; 여기서 한잔하까?

웨이터; (기다렸다는 듯이) 어서옵쇼!

노동자2; 여기 김안성이 나오디요?

웨이터; 예! 김안선도 심형내도 다 나옵니다.

노동자1; (노동자2에게) 들어가자!

웨이터; 예! 여기 손님 받아라. (절을 굽신하며 안에 소리친다.)

(둘이 들어가다가 멈춰한다. 돌아서서)

노동자2; 아녀, 생각해봉께 불야성보다 황태자가 낫겠구먼!

(웨이터가 들으라고 말한다.)

노동자1; 맞다 맞다. 밤새 퍼 마실끼도 아인데 불야성이 뭐꼬?

저집은 민하경도 나오드만.

(둘이는 나와서 황태자 스텐드빠로 간다. 뒤에서 웨이터

가똥뚱은 얼굴로 보고 있다가 침을 뱉는다.)

#6 스텐드빠

(스텐드빠에서 춤추고 노는장면, 술마시는 장면, 둘이 스텐드빠에서 걸어 나온다.)

노동자1; 카! 오랬만에 목구멍에 때베끼오 몸 풀었드니 기분 직이네!

노동자2; 그러! 시상에 이런 맛도 있었네 그러?

근디, 똥사람들이 그리 많다나?

노동자1; 그래 말이다. 술값이 싼게 아인데...

(말을하며 올라다보니 스타터키탕이라는 네온싸인이 눈에 들어온다. 노동자2를 돌아다보며)

니, 고기생각 안나나?

노동자2; 고기는 아까 실컷 먹었는데 또 똥고기여?

노동자1; 하이고 이 돌대가리자숙. 그것만 고기가? 저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아가씨를 가르킨다.)

노동자2; 글씨 한잔형께 회가 동허긴 현디...

노동자1; 그럼가자! (잡아끌어 터키탕으로 간다.)

노동자2; 여근 목욕탕 아녀?

노동자1; 이 촌놈의 자숙. 여긴 미아리, 청량리하고 차원이 다른데 아이가?!

노동자2; 그러? (쳐다보며) 비살틴디...

노동자1; 오늘은 돈생각 안하기로 안그랬나?

노동자2; 그라도...

노동자1; 할끼가 말끼가?

노동자2; 뭐 꼭 안한다는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꼭...

노동자1; 이 문디자숙, 내송그만똥고 싸게싸게 온나. (앞장서 들어간다.)

(터키탕 네온을 클로즈업. 시간이 흐름을 표시.

둘이 터키탕서 나온다.)

노동자1; 어뜨노? 돈값하께?

노동자2; 그러! 좋긴 좋드만 피부도 뽀얀게...

나보고 근유기 단단하다고, 운동하냐고 물어보데!

노동자1; 그래, 뭐하렸노? 쫌수빠지게 노가다해서 그렇다고 했나?

노동자2; 나똥! 운동좀 했다고 했제.

#7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노동자1이 버스표파는곳을 쳐다보니 "1회용 (즉석) 복권 팝니다"가 커다랗게 써있다.)

노동자1; 니, 돈 얼마 남았노?

노동자2; 돈, 야그허지마라! 속이쓰링게!

시상에 여섯시간도 안돼서 한달 뽀빠지게 일해서 분 돈

이 날라가 버링께 참 뭐라고 표현하기 곤란허구먼!

노동자1; 그래! 세상물정 배우는데 돈들었다 치고 이리와 봐라!

(즉석복권 파는곳으로 간다) 엑스포 2장 주소.

이거 뽀끼갔꼬 500만원 맞으면 된다 아이가!

노동자2; 500원짜리도 한번 안맞드만...

노동자1; 부정타는 소리 했싸지 말고 뽀끼봐라!

(둘이 열심히 일회용 복권을 배긴다. 둘다 짱이다.)

노동자1; 니하고 내하고는 궁합이 안맞는지 아이가?

노동자2; 500원짜리 인생되고 싶어서 궁합타령이여?

노동자1; 그렇제? 가자!

(둘이 복권을 등뒤로 던진다)

#8 회사경리과 사무실

(회사 관리실 경리과에 두명이 죄지은듯 서있고 과장인듯한 사람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과 장; 어제가 월급날이었는데 똥 가불이야?

노동자1; 사정이...

과 장; 술 먹었지?

노동자2; 예...

과 장; 어디서?

노동자2; 스텐드빠에 가서...

과 장; (어이없다는듯이 비웃으며) 스텐드빠?

뱀새가 황새 쫓아갈려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법이야!  
 요새 파소비하지 막자고 떠드는거 못봐?  
 어쨌든 지금은 안되니까 보름후에 와!  
 노동자1, 2; (죄지은 듯이) 예! 그럼... (밖으로 나온다)  
 노동자2; 내 갑 드러워서! 뭐? 파소비?  
 씨벌놈들 시들이 언제 공돈한번 보태준적이 있다고 연설  
 을 까!  
 노동자1; 뭐? 애국자고 나라의 보배라꼬? 보배는 술마시면 안되나  
 ? 어려울땐 언제나 찾아오라꼬? 주둥이나 안까면 이쁘기  
 나하계. 벌×같은놈들.  
 (걸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심각해진다.)  
 이봐라!  
 우리도 이것 그만두고 술집웨이터 하는게 안 낫겠나?

#9 유흥기 골목

(노동자1, 2가 유흥가를 걸어가고 있다. 암소한마리를 지나가다가  
 노동자2가 멈춰한다. 창으로 안의 모습이 보이고 계산대에서 계산  
 하는 사장과 파장, 여직원의 모습이 보인다. 옆골목으로 숨는다. 숨  
 어서 사장, 파장, 여직원의 뒤를 본다.  
 거들먹거리며 이를 쭈시고 나온 사장, 파장, 여직원이 조금 떨어져  
 있는 룬싸롱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바라보는 노동자1, 2의 뒷모습  
 .)

[ 끝 ]

# 제 목: 해 후

유 미 숙

나오는 사람들 : 박선생, 이선생, 교장  
 미경, 희정, 연극반 학생들  
 중년남자, 술집여자-희정의 선배, 건달들

때 : 신학기가 두어달 지난 5월경

# 1. 방과후의 교실

책걸상이 한켠으로 비켜 있고 중앙에 원형으로 예닐곱개의 의자와 책상이 동그  
 란 원형으로 자리 하고 있다. 이제 막 모임이 끝났는지 학생들과 박선생이 책걸상  
 을 제자리로 정리하고 있다.

학생1 : 「 선생님! 정말 우리가 대본을 직접 쓸 수 있을까요? 」  
 박선생 : 「 당장은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단다 」  
 학생2 : (걸상을 옮기다 말고) 「 언니가 대학에서 연극반을 해요. 얘기만 들을 때는 무  
 척 재미있을 것 같은데... 」  
 박선생 : (책상줄을 나란히 맞추며) 「 우린 더 신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 」  
 학생3 : (입이 뻐로롱해져서) 「 그렇지만 극작가도 아닌데 어떻게 대본을 써요? 」  
 박선생 : (여유있게) 「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면되지. 어떤 국어 선생님이 말하  
 기 를 글쓰기는 똥누기와 같다고 했거든 」  
 아이들은 이말을 듣고 일제히 낄낄대며 웃는다. - 하필이면 글쓰기를 웅변에 비  
 유할게 무어람 하는 투로  
 박선생 : (짐짓 근엄한 투로) 「 똥누는데 기교부리는 사람 봤니? 」 (손으로 동그라미를  
 말아 올리며) 「 자연스럽게 그냥, 글쓰는 이치도 같다 이거지 」 (접어올린 와이셔  
 츠 소매를 도로 내리며) 「 자 다음 시간에 대본을 직접 만들지 기왕에 있는 걸로  
 할지 의논을 더 해보는게 좋겠다. 그럼 이만 마칠까? 」  
 학생들 : 「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  
 박선생 교실문 쪽으로 나가다 문득 생각난듯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선다  
 박선생 : 「 오늘은 미경이가 안 나왔는데 어디 아픈거 아니니? 누구 소식 아는 사람? 」

아이들 가려다말고 저희들끼리 눈만 말뚱말뚱 마주친다

박선생 긴 복도를 두벅두벅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연극반 학생 하나가 머뭇거리며 뒤따라와 모기 소리만하게 박선생을 부른다

학생1 : 「 저어... 선생님 」

박선생 : (걸음을 멈추고) 「 왜 그러니? 네 얼굴에 말뚱할 근심이 잔뜩 피어 있구나 」

학생1 : 「 사실은 미경이 일인데요... 」

들은 어느새 아직도 딱딱한 즐기만이 능글맞게 얹혀 있는 등나무 밑 벤치에 란히 앉아 있다

학생1 : (두 손으로 메모지 만을 연신 꼬깃꼬깃 말아 올리며) 「 미경이가 이틀전에 집을 나왔어요. 오늘은 꼭 학교에 데리고 오려 했는데 ... 」 (말끝을 흐리고 발끝만 쳐다본다)

박선생 : 「 미경인 지금 어디 있니? 」

학생1 : 「 집을 나오긴 했는데 막상 갈 곳도 없고 저녁이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지냈어요. 」

선생님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어요 」 「 이번이 두번째예요. 담임선생님께는 말도 못 꺼내겠어요. 아마 곧 처벌 받을 거예요. 미경이가 불쌍해요 」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안고 운다 )

박선생 : (한 손을 학생의 어깨에 얹고 달래듯 말한다) 「 자, 마음을 가라 앉히고 차근 차근 말해 봐라 」

학생1 : 「 미경이는 영 집에 안들어 갈지도 몰라요. 엄마가 무섭대요. 전 미경이 등에 난 상처를 봤어요. 끔찍해요 」 (연신 울먹이며) 「 뱀처럼 두가닥이 나있는데 혁대로 맞았대요 목욕탕에서.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

박선생 : 「 미경이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지 않니? 그런데도 성적 땀에 집에서 시달리니? 」

학생1 : (휴지로 코를 닦으며) 「 개네 오빠와 언니들은 일류대학에 다니고 큰 언니는 미국 유학중 이래요. 개네 엄마는 미경이가 제일 꼴통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하나봐요 」

박선생 : 「 그래도 부모 맘이 어디 그렇게 모질기만은 하겠니? 어쨌거나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때 상처가 크겠구나.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가볼까? 」

학생1 : (발끝은 모아 서로 삐적거리며) 「 안돼요! 선생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 그러다 개 우리집에서 나가버리면 어떻게요 」

박선생 : (한손으로 팔목을 부여잡고 간곡한 품으로) 「 내일 내가 미경이 담임선생께 사정을 잘 이야기하마. 넌 오늘밤 미경이를 잘 위로하고 담임선생님과 내가 미경이 어머님 만나고 미경이도 만나 일을 잘 수습해보자 」

학생1 두 어깨가 처진 채 앉아 있고 박선생 담배 한 모금을 길게 뿜어내는데 학교 수위가 교문을 걸고 있다

## # 2. 카페안

박선생과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이자 대학 후배인 이선생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이선생 : (반쯤 남겨진 찻잔을 습관적으로 티스푼으로 저으며) 「 요즘 같아선 차라리 회식 없는 편이 낫겠어요 」

박선생 : 「 이웃 모란여중 싸움뎀에 불뚱이 될까 지레 겁먹은거지 뭐가? 」

이선생 : 「 선배님에게도 부연중 압력을 넣는다면서요. 연극반 해체하라고 」

박선생 : 「 턱없는 소리세. 공연히 색안경끼고 보는 사람들이 문제야 」

이선생 : 「 재단 쪽에선 공연히 굵어 부스럼을 만들 모양인데 괜히 당하지 말고 대비 잘 해주세요 」

박선생 : (차를 한모금 들이키며) 「 그나저나 연극반 애 중에서 가출한 애가 하나 있어. 담임하고 얘기 해봤는데 씨도 안먹혀. 내일은 내가 애를 한번 만나보고 그 애 엄마도 만나야겠는데 ... 」

이선생 : 「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대니까 애들이 하나 둘 거리로 튀어 나가지요. 전에 교생 때 한 번 겪어 봤는데 ... 」

박선생 : 「 담임선생은 뭔가 하나 더 알고 있는 눈치던데 비담임 처지로 월권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두자니 안타깝고 답답하네 」

이선생 : (담배 공초를 잿떨이에 눌러 끄며) 「 선배님, 기왕 이곳까지 진출했으니 오늘은 제가 한잔 살게요 」

박선생 : (카운테에서 계산하며) 「 넌 모래면 아빠 소리듣네. 이쯤에서 마누라 충고를 따라 뒤야 바가질 면하지 」

이선생 : (싱글거리며) 「 위궤양엔 민간요법으로 막소주가 특효약이라던데 」

박선생 : (가볍게 이선생 어깨를 톡치며) 「 예끼 이사람아! 고약한 농담 여전하군 」

## # 3. 카페 밖거리

어둠속에 유흥가의 불빛이 현란하다. 밖은 어느새 봄비가 주척거리고 내려 보도 위엔 가로등에 반사된 물기가 번득인다. 박선생과 이선생은 비를 피해 어느 지하로 통하는 술집 입구 처마에서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지하 룸살롱인듯한 층계가 시끌시끌해 지면서 마담인듯 한 중년여자가 나오고 바로 뒤로 여종업원과 중년남자가 나온다

마담 : 「 이 상무님, 많이 취했으니 오너는 안돼고 은실이 니가 모셔다 드려 」

마담은 들어가고 중년남자 여종업원에 반쯤 기대어 비틀거리고 올라온다

중년남자는 종업원의 부축을 받고도 몹시 취한듯 비틀거리다 박선생의 옆구리에 낀 서류 봉투를 비오는 보도 위에 떨어 뜨리고 구둣발로 밟는다 )

여종업원 : (황급히 서류봉투를 주워 올리며) 「 이걸 어째! 젖은걸 밟았으니 ... 」

중년남자는 안중에도 없다는듯 고육 트림을 하며 연신 비틀댄다

여종업원 : (봉투를 건네주며) 「 미안해서 어찌지요 」 (남자의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박선생님에게 주며) 「 나중에라도 연락하세요. 혹 변상할거라도 생기면 」

여자 남자를 부축한채 택시 정류장으로 간다

박선생 : 「어디서 봤더라 ... 아주 낯익은 얼굴인데」

기억을 상기 시키느라 애쓴다. 박선생 불현듯 생각한 듯 여자를 쫓아 간다

이선생 : (뒤쫓으며) 「같이 가요, 박선생님!」

박선생 : (택시를 잡아 타려는 여자를 붙들어 세우며) 「아가씨 희정이 맞지? 최희정!」

「나야 박남수 K 여중 때 박남수」

여중업원 : (몹시 당황한 모습으로 굳어져서)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 몰라요」

박선생 : 「그렇지? 희정이 맞지! 날 모르겠니?」

여중업원 : (박선생을 뿌리치며 택시에 오르며) 「어서 출발해요. 아저씨」

박선생을 뒤로한 채 택시는 떠나버리고 빗속에서 박선생 꿈을 끈듯 멍하니 넋을 잃고 서 있다. 서울의 밤거리 속절없이 휘황하다.

#### # 4. 이선생의 자취방

어둠이 내리 덮은 한새벽. 달빛이 창가로 스며드는데 방구석에 스주병 서너개가 텅글고다. 박선생 어둠속에서 더듬더듬 물주전자를 찾아 물을 들이킨다

박선생 슬그머니 일어나 비칠비칠 밖으로 걸어 나간다. 이선생의 방은 고지대 옥상 방인지 서울 시내의 꺼져가는 야경이 그런대로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박선생은 난간에 비스듬히 앉아 물끄러미 야경을 바라보다 생각에 잠긴다 )

박선생 : 「저 불빛 아래 어디선가 희정이는 웃음을 팔고 있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도왔더라도 그렇게 쉽게 학교를 떠나지 않았을텐데 ....」

지문 : 「희정이는 박선생의 교단일지에서 지울 수 없는, 아니 평생토록 간직해야만하는 속죄양 이었다. 어러저러한 이유로 학교 교육 틀에 궤어 맞출 수 없는 애들 중에 하나라지만 간밤에 희정이와의 해후는 잃어버린 한마리 속죄양에 대한 깊은 자책을 되새김 시켰다」

쭈그리고 앉아 있는 박선생 곁에 이선생이 어느샌가 슬그머니 뒤따라나와 한손을 박선생 어깨에 얹어준다

박선생 : 「교직 5년동안 무엇하나 소신있게 꾸려나간 것도 없고 애들에게 죄만 짓고 있는 것 같아. 하나씩 하나씩 꿈을 빼앗고 그 자리에 절망을 심어 주는 형편 없는 선생이 바로 나야」

이선생 :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새벽 바람이 참니다. 그만 들어 가십시다」

어둠 속에 박선생 웅크리고 앉아 있고 이선생 바로 곁에 서있다

#### # 5. 교무실

출석부를 들고 교무실 밖을 나서는 선생님들 모습. 박선생 자리에 앉아 있다. 머리가 흘러 내리고 조금은 피로한 모습. 교감 조용히 다가와 무어라 조그맣게 지시하고 간다

박선생 : (교장실 앞에서 노크하고 들어선다) 「부르셨습니까? 교장선생님」

교장 : (소파의 팔걸이를 연신 손가락으로 피아노치듯 누르며) 「앉으세요, 박선생님. 다음 시간에 수업도 있고 해서 딱 잘라 본론만 말씀드리지요. 연극반 일인데요, 그만 해체하세요. 누가 알아 준다고 사서 고생이십니까? 재단측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을」

박선생 : (교장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뭔가 오해가 있는듯 합니다. 연극 지도도 수업 의 연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문화 공간도 필요하고」

교장 : (말을 끊으며) 「뜻은 압니다만 그만 두세요. 곧 학교 축제가 있는데 그걸로 충분해요」

박선생 : (이미 짐작했다는 뜻이 약간 화가 나서 얼굴이 상기되어) 「연극반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자그마한 일도 재단측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 자체가」

교장 : (팔을 저으며 말을 끊는다) 「내가 우려하는 점이 아니 재단에서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박선생님이 부임하기 1년전 우리 학교가 연일 마스크에 오르내리고 떠들석 했어요 연극반이다, 풍물반이다 모아 놓고 의식화 교육을 하질 않나 학생들은 데모에 앞장서고 (이마를 닦아내며)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좀 진정되는가 했더니 모란여중은 재단 분규가 터지고 이런 마당에 굳이 하지 말라는 것 하셔야 겠어요」

박선생 : 「교장선생님, 저는 윗사람들 눈치나 봐가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제 교육적 양심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교장 : (화가 나서 탁자를 탁탁 두드리며) 「왜 그리 말귀를 못알아 듣는거요! 윗사람들에게 밋보여 좋을게 뭐가 있다고? 가뜰이나 지난번 옥성희비 납부 문제로 박선생 주목받고 있음을 명심하세요」

박선생 : (옆구리에 낀 연극반 일지가 가느다랗게 떨리며)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선생은 두벅두벅 걸어 나가고 둔탁한 문닫는 소리만이 '꽁' 들린다  
교무실로 돌아온 박선생 즐담배를 피워댄다

지문 : 「별스럽지도 않은 문제로 교장과 실랑이를 하거나 재단측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교육적 소신에 비추어 정당하게 추진해야 할 일 앞에 맥없이 주저 않으려

하는 자신이 자꾸 왜소하게 느껴졌다. 그럴수록 아이들의 초롱한 눈망울이 매서운 시

선으로 변해 이내 박선생에게 다가왔다」

이선생 : (박선생 등뒤에서) 「박선생님, 2교시 수업 안들어 가세요」

박선생 출석부를 집어 들고 맥없이 일어선다

#### # 6. 밤거리

카페 안 카운터에서 박선생이 한장의 사진을 내밀며

박선생 : 「 최은실이란 아가씨 여기서 일하지요? 」

여자 : 「 사진을 흘끔보더니 」 「 드나드는 애들 없어요. 우린 불법영업 안하니까 귀찮게 말아요 」

박선생 층계를 걸어 오르며 손바닥의 명암을 손아귀로 꾸욱 누르고는 잠시 전의 일을 회상한다

중년남자 : 「 명암을 받아 들고는 박선생 아래 위를 꾸욱 훑어보고는 」 「 누구시더라? 난 댁을 모르는데 ... 」

박선생 : 「 은실이란 애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

중년남자 : 「 서류철을 덮으며 귀찮은 듯 회전의자를 돌려 창 밖을 향하고는 돌아 앉는다 」 「 허를차며 」 「 술 집 떠도는 계집애들이 한 둘인가? 나도 딸을 하나 두었지만 쫓쫓 ... 」

생각 끊기며 술집 남자종업원 하나가 술그머니 뒤쫓아와 박선생에게 귀속말로 무어라 알려준다

#### # 7, 뒷골목 주택가

골목 입구에 비닐봉다리의 쓰레기들이 빠져나와 널려 있고 가끔 개 짖는 소리가 킁킁대며 들린다. 박선생 집을 찾느라 이집저집 기웃댄다. 이윽고 어느 한 집으로 들어 오니 좁은 마당은 'ㄷ' 되어있고 얼른 봐도 닭장집이다

여자 : 「 방문을 열며 속옷차림으로 상반신을 내밀고는 」 「 뭐예요? 」

박선생 : 「 최은실 아니 본명이 최희정인데 만날 수 있는지요? 」

여자 : 「 짐을 짝짝 씹으며 경계하는 표정으로 」 「 그런 애, 여기 없어요 」

박선생 : 「 여기 사는것 알고 왔습니다. 꼭 한번 만나야 하는데 ... 」

여자 : 「 아예 문턱에 나와 노골적으로 야한 폼으로 걸터앉아 담배 한대를 피워 문다. 박선생 아예 마주 볼 엄두도 못내고 발끝만 쳐다본다 」

여자 : 「 아저씨! 꼭 은실이야 돼? 여기 은실이 보다 잘 빠진애 수두룩 해 (자신을 가리키며) 난 어때? 」

박선생 : 「 얼굴이 별경게 상기되어 어쩔 줄 모르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 「 그런게 아니고 사실은 」

여자 : 「 애개개, 보아하니 은실이 옛 애인 쯤 되는것 같은데 개 소식도 모르네. 마담 언니 따라 다른데로 갔는데 ... 」

박선생 : 「 희정인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긴 옛 제잡니다. 꼭 만나서 할 얘기도 있고 ... 」

여자 : 「 표정이 일그러져 담배불을 눌러 공초를 아무데나 던지며 」 「 그럼 끈대었어. 별 풀이군. 선생이면 고상하게 학교에서 품잡고 있을 일이지 이런덴 왜 기웃대 (빈정 거리는 웃음이 가득하며) 카, 웃긴다 웃겨! 옛 제자를 찾아 이 누추한 곳에 행차시라 (옆 방을 향해) 애들아! 내달에 썬데이서울에 불만한 꺼리 생기겠다 」  
방문들이 하나들 열리고 여자들 내다보며 키득댄다

박선생 : 「 얼굴을 굳어져 」 「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

여자 : 「 당신이 정말 끈대라면 이 시간에 은실이 찾아 기웃대지 말고 거리에 나가 애들 선드나 잘하시지. (수선스럽게 코 앞을 부채질하며) 어휴! 이 끈대 냄새. 머리가 팍팍 쪼개지는 것 같네 」

여자는 '쿵'하니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다. 박선생은 그 집을 뒤로 하고 대문을 나서 몇걸음 나오는데 남자 셋이 앞을 가로막아 선다

남자1 : 「 박선생에게 어깨를 비스듬히 위협적으로 가로막으며 」 「 형썬 처음보는 손님인데데! 」

박선생 : 「 왜들 이러십니까? 」

남자2 : 「 박선생 떡살을 잡으며 」 「 누구야! 이곳에 무단출입하는 놈이 」

두말도 없이 주먹으로 복부를 한대 먹인다

박선생 : 「 비틀거리며 」 「 난 사람을 찾으러 ... 」

남자3 : 「 이놈봐라! 어느 놈 끄나풀이야! 손을 좀 봐줄까? 」

남자 셋이 박선생을 번갈아 주먹세례와 발길질을 퍼붓는다. 박선생 늘씬하게 맞고는 쓰레기 옆 전봇대 밑에서 쓰러져 신음한다 )

#### # 8, 병원 병실 안

박선생 어깨에 붕대를 두르고 링겔을 맞고 있다

이선생 : 「 걱정스런 얼굴로 」 「 얼마나 있어야 한데요? 」

박선생 : 「 싱긋 웃으며 한 쪽 팔을 접었다 폈다하며 」 「 사흘 후면 퇴원 할거야. 가벼운 타박상 정도 인걸 뭐 」

이선생 : 「 얼굴이 심하게 상했는데 며칠 더 쉬시지요? 애들한테 그 열성인데 이게 웬 봉변 입니까? 」

박선생 : 「 봉변은 무슨? 애들에게 죄 지은게 많으니까 그 죄 값음이지 뭐? 」

박선생 : 「 이선생에게 메모지 한장을 전해주며 박선생은 이선생 윗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 한대 피워문다 」 「 오전에 깜박 잠든 사이에 다녀간 모양이야 퇴원하면 만날 수 있겠지 」

이선생 : 「 메모지를 들여다보며 」 「 연신 미안하단 걸 보면 희정에도 썬 괜찮은 아이네요? 」

박선생 : 「 연기를 길게 뿜으며 」 「 미안하긴 내가 진 빚이 훨씬 많은데. 여기 누워있던 이틀간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군. 내 얼굴의 멍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희정이 가슴에도 멍이 잡혔을 게고. 애들을 바르게 가르친다는것, 교사 노릇 제대로 한다는게 어떤건가 하고 」

이선생 : 「 참 미경이가 오늘 학교에 나왔어요. 개 엄마하고 」

박선생 : 「 그것 참 다행이군. 내심 걱정이었는데 」

이선생 : 「 근데 미경이 생모가 따로 있다지요. 지금 엄마와 헤어지고 생모와 함께 산다고 하던데 」

박선생 : 「 그래 뭐가 뭔지 모르겠군. 출근하면 연극반에서 만나게 되겠지 」  
 이 때 병실문이 열리며 아이들 우루루 들어오는데 잠시후 머뭇거리며 미경이도 따라 들어 온다. 웬지 속스러워하며  
 박선생 : 「 웬일이냐? 너희들이 예까지? 」  
 학생1 : 「 많이 다치셨어요? 선생님! 」  
 박선생 : 「 많이 다치긴 널 모래면 퇴원할거야 」  
 미경 : (머뭇거리며) 「 선생님 좋아하시는 오징어예요 」  
 박선생 : (오징어를 받고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 녀석들 내 생각은 끔찍이 해주네 」  
 (한손으로 미경이 손을 잡고) 「 야 오랜만이다. 되게 반갑다. 그래 청춘 고민 1막 1장은 끝났니? 」  
 미경 : (암말없고 멋지게 웃는다) 「 ... 」  
 박선생 : (아이들을 둘러보며) 「 너희들끼리라도 연습은 잘 되어 가니? 」  
 아이들 저희들끼리 말뚱말뚱 바라만본다  
 학생2 : 「 우리 연극반 해체된다고 하던데 ... 」  
 박선생 : 「 연극반 주인은 우린데 누가 맘대로 해체하니? 」  
 아이들 : (눈이 동그래지며) 「 그럼 계속 진행해요? 」  
 아이들 손을 잡고 기뻐한다  
 박선생 : 「 녀석들 그동안 서로 정 많이 들었구나. 미경이 너도 계속 할거지? 」  
 미경 : (고개를 끄덕인다)  
 학생3 : 「 그러니까 미경이도 같이 왔죠 」  
 박선생 : 「 고민 1막2장이 올라가면 나도 끼워 주기다. 알았지 」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보에 쌓인 아기가 할머니 품에 안겨 들어온다. 아이들과 이선생 의아해서 아가 얼굴을 들여다 본다  
 학생1 : 「 아아! 이렇게 어린 갓난애는 처음 본다 」  
 박선생 : 「 으응, 어젯밤에 공주님을 얻었지 」  
 이선생 : 「 퇴원하시는 날이 축하주 내시는 날이에요 」  
 아이들 : (잠에서 깨어나 울어대는 아가를 보며) 「 우리 연극에 관객하나 더 늘었다. 아기가 아빨 닳았나? 엄마을 닳았나? 예쁘다 그지? 코도 오뚱하고 」 이선생과 박선생 그리고 아이들이 갓난 아기를 얼르며 즐거워한다

## <도술천의 승천>

장 경 희

### # 1 작은포구 (늦은오후)

(하늘이 비를 '머금고 잔뜩 낮아있다. 돌아오는 배들, 갈매기, 어부들, 포구의 여수선함이 있다. 이런 풍경들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승천'. )

### # 2 같은 포구 (저녁 어스름)

(빗방울이 잔잔히 뿌린다. 승천은 미동도 없이 한자리에 서 있다. 이때 초라한 고양이 한마리가 승천의 다리를 비빈다. '아옹'. 문득 정신이 든 승천이 고양이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발길을 돌린다. )

### # 3 포구의 버스 정류장 (밤)

(빗살이 굵게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지친듯한 비스가 도착한다. 피곤한 사내 두명과 함께 진수가 가방 하나를 땀채 내린다.

진수, 우산이 없어 옷깃을 울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비오는 밤의 포구는 촌스런 배운싸인이 조는듯 반짝인다. 진수는 비오는 것도 아랑곳 않고 주변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긴다. 진수의 뒷모습. )

### # 4 도술천 식당

(포구에 흔히 있는 익숙룩한 찻집식당이다. 도술천의 여



주인이 방안에서 화투로 재수를 띠고 있다. 승천, 문 가까이 의자에 앉아 비오는 밖을 망연히 바라본다.)

여주인; (화투의 마지막 장을 던진다)

어디보자. 달밤에... 그러운 님을 만나... 술을 마신다? 예잉! 벌써 틀러부렸네.

달밤은 무슨, 주룩주룩 비오는 밤인데.

(승천을 힐끗본다) 승천이런 봄바람 불게하는 징상스런 밤인데...

승 천; (이전히 밖만 보고 있다.)

여주인; (담배를 피어본다)

야, 야, 승천아, 그렇게 목뻐고, 났뻐고 몇날몇칠 보듬고만 앉아있으면 뭐한다나. 그놈의 청승일랑 지발 좀 그만 떨지라 잉!

승 천; (미동도 없다)

여주인; (부화가 나서 담배를 비벼본다)

아, 그래도 꿈쩍도 안하냐!

내말이 발갈지 않고 쪼깐한 똥개새끼 께께거리듯 들리나 잉!

그찮아도 이놈의 장사도 해가 갈수록 해먹기 어려워 심사가 편찮은데 으짤라고 해마다 내년도 요배 맞춰, 그 징한 청승을 떨어쫓나. 잉! 잉!

승 천; (여전하다)

여주인; (소리친다) 아, 이 징상스런 빛속에 뭐가 온다고 뉘놓고 그 청승을 떨어 쫓나니까!!

승 천; (그제야 돌아보고 빙긋 웃는다)

언니, 우리 봄비도 오시는데 술한잔 할까?

## #5 길목

(포구에서 상점가로 접어드는 길이다. 빗방울이 제법 거세게 내린다. 일찍 문닫은 상점들로 해서 대체로 캄캄한 길목.)

진수의 다리가 보인다. 빗물에 철썩대는 신발. 걸던 발이 문득 멈추고, 그, 앞을 지나가는 고양이.

진수, 비오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걷는다.)

## #6 도술천

(승천과 여주인, 식탁에 간단한 술상을 차려 놓고 앉아 있다.)

여주인; (나죽이) 너도 인자 그만 정신차려!!

그찮아도 복잡하고 골치아픈 인간산다. 사람에게 정 붙어 노면 골치 아파야.

아, 니도 여러번 당했잖나. 니 봄바람 불때마다 그 지극정성을 다 했어도 누구 한 놈 고맙다고 찾아온 놈 있었던 말어!

승 천; (승천, 일어나 유리문 앞에서 밖을 본다)

내가 좋아서 한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 착한 사람들이었잖아. 불쌍하구...

여주인; 응~쯔쯔. 니가 무슨 보살이라두 되냐? 그래서 맨날, 뺑신에, 골골거리게 폐병장이었나 잉!

왜 하필이면 성한사람 다 놔두고, ...으구, 속터져.

승 천;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었어, 언니!

다 인연이니까 만났지.

#7 도솔천 앞

(오른쪽은 바다이고 왼쪽 기슭에 허름한 식당 몇개가 있고, 빗속에 진수가 걸어온다.)

진수, 식당들을 바라본다. 해변집, 정든님, 갈매기, 도솔천...  
진수의 눈길이 바다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솔천에 머문다.)

#8 도솔천

(승천이 일이남과 동시에 문이 서둘러 열리고 진수가 들어온다.)

진수; 국밥 하나 주세요.

승천; 어서오세요. 이런, 비에 함박 잠겨버렸네!

여주인; 아이고, 참. 댕 비가 이리 억수로 온터~ 욱봤소

승천; (수건을 건네준다) 우선 좀 닦아요.

진수; (가방을 내려 놓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후 두 여인을 본다. 몹시 피곤한 얼굴이다.)

(수건을 돌려주며) 감사합니다.

승천; 이런, 수건갈균 안되겠네! 언니, 방안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진수; 아닙니다. 몸이나 좀 녹이면 됩니다.

승천; 그래갖구 몸이 녹겠어요? 감기 걸릴것 같은데.

오늘은 손님도 없고 그러니 조금도 불편해 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요.

(여인을 돌아 보며) 언니!

여주인; (청년을 빨리 보고 있다가) 들어오세요.

진수; 괜찮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온 몸이 다 젖어있어서요.

승천; 어머, 참!

그럼 잠깐만 기다려요.

(방에서 낡은 남자 옷옷과 바지를 가지고 나온다)

이거 낡았지만 깨끗한 거니까, 우선 갈아입어요.

진수; (당황해하며) 아니, 이럴것까진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갈텐데 이런 패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주인; (등명스럽게)

아, 원하는 사람 정성도 있음께 너무 그리 빼지 마소. 어서 갈아 입고 방으로 들어오세요.

진수; (잠시 생각하다 결심한듯)

예.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승천; (환히 웃으며 진수의 팔을 끈다)

여기 주방으로 가서 갈아입어요.

(청년이 옷을 들고 주방으로 가고 승천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내리고 화투를 치우는 등, 수선을 편다.)

이윽고, 옷을 갈아 입은 진수가 나온다.)

승천; 어서 방에 들어가 몸 좀 녹여요. 봄비라고 해도 몸살나기 쉬우니까. 이 옷은 내가 맡려볼게요.

아, 어서요!

(승천이 진수를 방으로 이끌고 진수, 들어간다.)

#9 방안

승천; 이리 아랫목으로 와서 앉아요. 얼른 따끈한 밥상 차려 올게요.

진 수; 아, 네. 감사합니다.

(승천이 나가자 진수, 이불을 덮고 벽에 기댄다. 이내 방 바닥의 온기에 나른해진다. 벽에 머리를 기댄채 방을 둘러보다, 벽장위에 있는 액자에 눈이 간다. 그것은 판화인데 두 남녀가 춤추는 듯한 자세로 진달래 꽃가지를 들고 힘겹게 길을 헤쳐가는 그림으로, 꽃잎의 휘날림이 인상에 남아있던 판화였다.)

문이 열리고 승천이 상을 들고 들어 온다. 열린 방문 밖으로 여인의 못마땅한 얼굴이 보인다. 승천, 문을 닫는다.)

승 천; (수저를 주며) 자, 어서 따뜻할때 들어요.

진 수; 예. (어색해하며)

승 천; (진수의 먹는 모습을 찬찬히 바라본다)

천천히 많이 들어요. 옷은 내가 빨아서 넣어놨어요.

진 수; (떡던질 법추고) 빨아요?

승 천; (고개를 숙인다) 그냥 말리면 냄새민 나고, 뭐...

진 수; (웃는다) 저뻐에 폐가 너무 크네요.

승 천; (표정이 밝아진다) 폐라뇨, 손님인데.

그런 걱정 말고 어서 식기전에 들어요, 어서.

진 수; 예, 예 (진수, 맛있게 먹는다)

#### # 10 식당 홀

(여주인은 방문을 바라보다가 담배를 피워분 뒤 유리분가로 가서 비오는 밖을 바라본다.)

여주인; 썩을년. 올 봄은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승천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 허네. 인자 이 봄은 또 언제 간다나...

#### # 11 방안

진 수; (상을 물린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승 천; 아주 많이 시장했던 모양이에요.

진 수; 저, 아무래도 오늘은 이곳에서 묵어야 할 것 같은데. 이곳엔 여인숙이나 민박집이 어디쯤 있습니까?

승 천; ...여인숙이 있긴한데 여기서 한참이고, 민박집도 꽤 먼데... 그리고 이 빗속을 뚫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진 수; 뭐, 아무래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빈방만 있으면 됩니다. 숙박료는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승 천; 아, 그러면 되겠네요.

저기, 제가 쓰는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묵으세요.

진 수; 예? 아,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민박집이나 가르쳐 주세요.

승 천; 괜찮아요. 제방이지만 나는 여기서 언니와 잘 배가 더 많아서 거의 비어 놓으니까.

진 수; 그래도 그럴수야 있나요.

어떻게 또 폐를...

승 천;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나는 언니와 같이 여기서 자면 된다니까요.

진 수 ; 하지만 ...

승 천 ; 그리고 정말 여인숙이나 민박집도 너무 멀고 어차피 비어 있는 방인데, 제방이라서 뭐 안될까 있나요?

진 수 ; 저야, 어디든 하룻밤만 묵으면 됩니다만, 정말 그래도 괜찮다면 ...

승 천 ; 정말 잘 생각했어요.  
며칠 묵는데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을거예요.

진 수 ; (웃으며) 숙박료는 내겠습니다.

승 천 ; 그래요. 그게 마음이 편하다면.

진 수 ; (승전을 뻔히 바라본다)

승 천 ; (황망히 일어서며)  
저,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서 방에 불 좀 넣어야겠어요. (상을 들고 나간다)

#### # 12-1 식당 홀

승 천 ; (상을 주방에 놓고 나오며 비닐 우산을 집어든다  
언니, 집에 좀 금방 다녀올게요.

(승천, 비오는 밖으로 나간다. 여주인과 청년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진 수 ; (방에서 나온다)

저,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서 죄송합니다.

여주인 ; 여가 뭐, 민가도 아니고 식당인데. 가난한 길손이라도 손님 오는건 당연한 일인데 너무 맘쓰지 마소.

진 수 ;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여주인이 진수를 아래서부터 바라보자, 진수는 조금 긴장한다)

여주인 ; 술 한잔 하시겠소?

#### # 12-2 식당 '홀'

(진수와 여주인이 술을 마시고 있다. 간단한 안주에 소주 한 병.)

여주인 ; (술을 마신다) 캣~! 좋다!

진 수 ; (여주인에게 술을 따라주며, 눈이 마주친다)

오늘 제가 운이 좋습니다. 어디에 가서 누울곳을 찾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으니깐요. 좀 때가 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주인 ; 폐는 무슨 때.

승천이야, 지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진 수 ; 그래두 그게 쉬운일인가요.

여주인 ; 청년 이름이 뭐여?

진 수 ; 김진수라고 합니다.

여주인 ; 김진수. 이름 좋네~

그럼, 진수청년 인자부터 내가 하는 야그를 유념해서 듣소 잉!

진 수 ; 무슨...

여주인 ; (뻔히 쳐다보며)

승천이 자가, 처음 본 청년한테 유별나게 싹싹하게 구는거 괜히 딴 꿈꿨이 속이 있어서 그라는 거라곤 오해 말고,

진 수 ; 오해라뇨? (영똥한 예기라는 듯 웃는다)

제겐 그저 고마운 사람인데요.

여주인 ; (인상을 찌푸린다)

그렇다고 너무 또 강아지새끼 꼬리치듯 좋아하질랑  
도 말고, 이거는... 말하자면...

매년 이맘때면 앓는, 연중행사니까,

진 수 ; 연중행사요?

여주인 ; 음 - 그렇다니께.

나가, 지금 진수청년에게 하는 말 선불러 듣지 말  
고 유평해 두는 것이 좋을지요 잉!

진 수 ; (약간 긴장한 채 귀를 기울인다)

여주인 ; 말하자면, 진수청년으로 해서, 승천이의 봄바람이 다  
시 불기 시작했단 말이제.

진 수 ; (눈이 커진다. 이해가 안된다는 듯)

여주인 ; 승천이가 우리집에 온 오년동안에 봄만 되면 한번  
도 빼먹지 않고 알아온 봄바람이다, 이말이여.

아, 그 봄바람이 올해는 진수청년, 자네한테서 불어  
왔다 이말이제, 잉!

진 수 ; (말을 못하고 여주인만 바라보고 있다)

여주인 ; 본래~ 이리저리 바람따라 떠도는 역마살이나 썰  
낀것 같은디.

오늘 재수가 드럽게 좋은줄이나 아소, 잉!

(청년이 여주인의 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승천이 들어온  
다)

승 천 ; 많이 기다렸죠?

자, 어서 가요.

### # 13 승천 방

(치마 밑으로 보이는 승천의 방 창문. 치마에 부  
딛는 빛소리가 사납다. 진수가 자고 있다가 신음소  
리를 낸다. 악몽을 꾸는 듯 손을 허우적댄다.)

진 수 ; 우욱! (벌떡 일어난다. 온 몸에 식은 땀.)

(방안을 둘러본 후 기억이 난듯, 곧 한숨을 쉰다.  
담배를 찾아문뒤에 방안을 찬찬히 둘러본다. 방안은  
정갈하고 최소한의 가구만 있다. 한쪽에 앉은뱅이  
책상이 있고 책 몇권, 염주가 보인다. 그리고 방  
한쪽에 차려진 밥상. 그위에 쪽지가 있다. 그 쪽지  
를 본다.)

쪽지 - 「일어나셨나요.

식사하고 한 잠 더 주무세요.

옷은 더 말려야겠어요.

만일... 이곳에서 좀 더 머물 생각이면

이방을 쓰도록 하세요.」

진 수 ; 승천 선녀가 다녀가셨군.

연중행사?

### # 14 도솔천

(약간의 손님들이 있고 승천이 손님에게 음식을 갖다준  
뒤 문가로 가서 비오는 밖을 바라본다. 주방 안쪽에 널어  
놓은 진수의 옷이 보인다.)

#15 D. D. D. (아직도 비)

(진수,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긴장되고 어두운 표정. 이야기 도중에 깜짝 놀란다. 묵묵히 듣고 고개를 끄덕인 후 전화를 끊는다. 진수, 공중전화Box에서 나온다. 비닐우산을 피고 하늘을 바라본다)

#16 승천의 방 (밤)

(진수, 책상앞에 머리를 감싼채 앉아있다. 담배연기가 방에 가득하고, 재떨이에 가득한 꽂초. 대학노트에 뭔가 쓰다가 만듯하다.)

진 수; (고개를 든다. 눈앞에 있는 승천의엄주를 들고 만지작거리다가 뒤로 벌렁 눕는다.)

(나레이션)

제길, 다 깨지다니! 대체 어떻게해서 탄로가 난 걸까. 스파이? 누가? 누가?

그렇게 힘들여 만들었던 조직인데...

아- 이러지 말자. 이럴수록 침착해야 해...

당분간은 이곳에서 머물기로 하자.

(승천의 엄주를 본다)

승천... 그녀의 모든것은 아주 진지하다.

그녀의 눈빛과 '승천'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는 또 얼마인가-

아, 아~ 당분간은 선녀님 신세를 저야 하나...

(눈을 감는다)

#17 바닷가 (노을)

(진수, 바닷가를 걷고 있다가 멈춰서 넘어가는 해를 본다. 멀리서 승천이 다가온다. 노을빛에 두사람의 얼굴이 붉다)

승 천; 아름답죠?

삼일동안 하늘이 눈물만 흘리더니 이런 선물을 주는군요. 여기서도 이렇게 대단한 노을은 드물어요.

진 수; 그래요?

좋은분들을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아, 정말 눈부신타요.

승 천; 난... 내 마지막이 이렇게 눈부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진 수; (웃으며)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국화옆에 선 누이처럼...

승 천; (미소지며) 내가 이곳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 눈물나게 부신 노을 때문일 거예요. 이 붉음속에 이렇게 물들어 서 있으면, 난 제사를 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잘 차려진...

진 수; (승천을 바라본다)

승 천; 저봐요. 해가 다 넘어갔어요.

이젠 해의 빛조각들을 구름이 머금고 있어요. 구름은 마치 해의 피빛 파편 같아요.

진 수; 피빛 파편?

승 천; (바다로 걸어간다)

(눈물이 고인채) 하지만 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나 고운 마지막 몸짓인걸요.

진 수 ; (파도속에 있는 승천을 바라본다)  
(노을속에 두사람의 실루엣이 선명하다)

#18 승천의 방 (방문 밖) - 새벽

(대문을 열고 승천이 들어온다. 부엌으로 가 연탄을 갈고 나온다. 잠시 방문앞에 서 있다가 몸을 돌리려는데, 이때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진수의 신음소리다. 승천은 그냥 가려다가 진수의 신음소리가 커지자 방으로 들어간다. 승천은 불을 켜다. 진수는 온몸에 식은땀으로 젖어 있고 호흡도 거칠다)

진 수 ; (손을 허우적 댈다) 안돼! 안돼! 거긴 들렸어!

승 천 ; (놀라서 잠시 굳어 있다가) 진수씨, 진수씨, 정신 차려요!!

진 수 ; 빨리 도망쳐! 빨리, 빨리!

승 천 ; (거칠게 진수를 흔든다) 정신차려요!

진 수 ; (소스라쳐 눈을 뜬다)

승 천 ; 정신좀 들어요? (눈물이 글썽하다)

진 수 ; 승천씨? (사태 파악을 한 듯 머리를 감싸안고 한숨을 쉰다)

승 천 ; 진수씨, 이젠 좀 괜찮아요?  
여기 물좀 들어요.

진 수 ; (물을 마신뒤) 그런데 여긴 웬일이세요?

승 천 ; 연탄불 갈러 왔다가 소리가 나는 바람에...

진 수 ; 죄송합니다.

승 천 ; 몸도 많이 상한것 같은데...  
무슨 걱정 있어요?

진 수 ; (웃으며) 아니에요. 정말 몸이 좀 부실해졌나봐요.  
괜찮을 거예요.

승 천 ; 정말요?

진 수 ;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승 천 ; (걱정이 되는 듯)

그럼 뭐 도움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알았죠?

진 수 ; 그럴께요. 정말 죄송합니다.

승 천 ; (일어나 나간다)

진 수 ; (한숨을 쉬고 자리에 벌렁 눕는다)

#19 바닷가

(밀려오는 파도. 승천이 해변을 걷고 있다. 승천, 진수를 발견하자 잠시 바라보고 손짓을 한다. 진수, 승천에게 다가가 얘기를 나누며 함께 걷는다)

#20-1 승천의 방

(진수, 책상에 앉아 글을 쓴다. 몰두. 왼손으로 엄주를 굴리고 있다)

#20-2

(밝아진 창밖. 진수, 책상에 엎드린채 자고 있다)

#20-3 아침

(승천이 들어온다. 이불을 깔고 진수를 눕힌다. 정신없이 자는 진수. 책상을 정리한다)

# 21 도술전

(진수, 승천. 식사를 한다. 승천, 진수에게 음식을 자꾸 권한다. 여주인이 흘겨보고 있다)

# 22 노을지는 바닷가

(진수, 바닷가를 걷다가 돌맹이를 넘어가는 태양을 향해 던진다. 바닷가를 향해 마구 고향을 지른다)

진 수 ; 야-----앗

# 23 도술전

(삐걱이는 유리문을 진수가 고친다. 다 고친뒤 승천, 진수. 흡족하게 웃는다. 여주인도 기특한 듯)

# 24 승천의 방수

(진수, 물<sup>방수</sup>하여 글을 쓴다. 기지개를 편 후, 문득 달력을 보고 우울해진다)

# 25 집 밖

(진수, 허불어진 놀담에 올라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 26 시장

(승천이 장을 보고 양손에 짐을 든채 온다. 파출소 앞에서 짐을 내리고 잠시 쉬다가 게시판에서 진수의 사진을 본다.

“이름 ; 민선우. 국가보안법 위반, ...”

놀라는 승천)

# 27 밤 바닷가

(승천, 서서 망연히 파도를 바라본다)

# 28 승천의 방

(승천이 밥상을 들고 들어온다. 진수, 아직 자고있다. 책상에 흐트러진 공책, 팬 등. 승천, 진수에게 이불을 잘 덮어준뒤 머리를 쓸어준다. 이윽고 승천이 방을 나간다. 눈을 뜨는 진수. 방문을 응시하다가 한숨을 쉰다. 파도소리가 유난히 크다)

# 29 도술전

(여주인, 식당 한구석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다. 심사가 뒤틀린 얼굴이다. 승천이 들어온다)

여주인 ; 야, 이년아. 아예 그 짙은 서방 께차안고 살림차렸나?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을텐디, 여긴 어떻게 오냐! 잉~?

승 천 ; (아랑곳 않고 주방으로 들어간다)

여주인 ; 예구, 복장터져. 나가 있는징 읍는징 나 굶어줘봤자, 언제나 돌아오는건 빈 허공이지. 암~

인자, 나도 더는 니플 뵈기가 싫어졌응께, 니가 알아서 읍써져야, 이?

다 기울어가는 이깃 쪼간한 식당. 사람 하나 있으나 읍쓰나 마찬가진께. 알았나?

승 천 ; (땀없이 웃는다)

언니, 어제 김치꺼리 사온것 어디다 뵈어?



여주인; 아, 뒷뜨락에 소금에 간질러났지, 아직껏 있겠나?

승 천; (김치꺼리를 가져와 김치를 담기 시작한다)

여주인; 승천아~이?

인자고마 정신 좀 쟁겨라. 혹여 진수청년이 니를 좋아한다고 해도, 어차피 바람같이 스치고 말 인연 인디, 인자 정이 터 깊어지면 서로 가슴만 아픈께, 서로를 위해서 인자 고마 그치저라. 잉?

승 천; 언니, 걱정하지마.

아무리 곱디고와도 바람은 바람인걸.

바람은 제촉을 안해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한숨을 쉰다) 나도 바람이었으면...

여주인; 기봐라— 니 벌써 뱀이 슬렁되기 시작하잖니.

어째 이번은 다른때완 달라서 니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이랑께!

가슴이 조깐 아파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알겠제?

승 천; (나죽이)

언니가 야단하지 않아도 벌써 그사람.

떠날차비를 하고 있는걸.

보름이 그사람에겐 꽤 긴 시간이었을 테니까.

여주인; 잉, 그래? 잘생각했네!

애고, 인자 뱀이 조깐 놓이네—.

그나저나, 진수청년. 이던지 이상한디가 많다니께?

그 얼굴에 노동핀에서 궁글린것 같진 않고, 또 이던가 유식현 믹물 냄새도 나는것 같고 하는걸 보

보면. 야야, 혹시...

승 천; 언니! 그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필하는 사람인지 난 상관없어. 어차피 언니 말대로 서로 바람같은 처지끼리 알면 뭐할거구, 몰르면 또 이때?

여주인; 야가 왜, 눈에 쌍심지 키구 야단이어? 참~

아, 알았당께. 그냥 좀 궁금하길래 물어본건데, 뻔 것두 아닌테 화를 내구 야단이람!

승 천; (묵묵히 일을 계속한다)

### # 30 승천의 방

(진수, 열심히 몰두하여 글을 쓴다)

### # 31 포구 정경

(귀가하는 배들, 갈매기, 또 비가 시작된다)

### # 32 바닷가 (저녁이 밀려온다)

(진수, 빛속에 서서 바다를 본다)

진 수; (나레이션)

끝났다.

하지만 뭘 끝났다고 하는건가.

수배생활 속에서도 글을 썼다는 것?

그건 또 무슨 의미지?

이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 동지들이 보고 싶다.

이곳에서 더이상 머무를순 없어.

이젠 정리할 때야.

19-131

...왜일까, 이 기분은...  
승천?  
(놀란다)

# 33 도솔천 앞

(식당 사이를 이리저리 기웃거니는 남자가 있다. 검은 우산을 쓴 늙은 사내로 깔끔한 옷차림이다. 사내가 식당들을 둘러보다 도솔천 옆 '갈매기집'으로 들어간다)

# 34 도솔천 안

(승천, 사내를 발견하자 몸을 숨긴다. 몹시 놀라서 얼굴이 파랗다. 승천, 급히 뒷분으로 도솔천을 빠져나간다)  
여주인; 스, 승천아?

# 35 도솔천 앞

(진수, 비닐우산을 쓴 채 걸어온다. 도솔천이 보일 무렵, 옆의 갈매기집에서 나오는 사내를 보고 몸을 숨긴다. 사내, 다시 도솔천으로 들어간다. 사내, 여주인에게 뭔가 묻고, 여주인은 고개를 흔든다. 사내, 짐속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 주자, 여주인은 놀라는 듯 하나, 이내 고개를 흔든다. 사내, 여인이 계속 거부하자 도솔천을 나온다. 진수, 이를 보고 있다가 몸을 돌려 달아난다. 발자국 소리에 사내는 진수가 달아난 곳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비닐우산만이 바람에 굴러가고 있다.)

# 36 승천의 방 (밤)

(방문이 저절로 열리고 진수가 젖은채 뛰어들어온다. 승천은 진수의 가방을 정리하고 있다. 진수는 이런 승천을 보고 아연해진다.)

승 천; (일어난다) 아직 시간 있어요.

진 수; 당신은, 그럼 내가...

승 천; (고개를 끄덕인다)

진 수;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내가 떠나야 하는지도 알겠군요.

(가방을 집어든다)

승 천; (진수를 잡으며) 아뇨,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시간은 충분해요.

진 수; (당황해 한다)

승 천; 나... 믿지요?

(진수의 가방을 내리고 수건으로 진수의 얼굴을 닦는다.)

승 천; 진수씨를 붙잡는게 아녜요.

질대로 해롭게 안해요.

다만 이렇게 헤어지는 건...

나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조금만 줘요.

(눈물이 고인다) 더이상...하루아침에 혼자 남는건 견딜수가 없어요.

(진수를 안는다)

...이젠 내가 떠날거예요...

(승천의 울음에 진수, 승천을 안는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소리가 "과광".)

# 37 승천의 방 (밤중)

(승천이 일어난다. 진수 가방에 속옷 두어벌, 돈이든 봉투, 자신의 염주를 넣는다. 잠시, 진수의 자는 모습을 들여다 본후 방을 나간다)

# 38 절벽

(승천, 바다가 아래로 보이는 바위산에 올라가 있다. 비바람이 거세다. 위험한 절벽에 서서 바다를 보는 승천)

# 39 승천의 방 (새벽)

(비가 그쳐있다. 진수, 일어나 승천이 없음을 안다. 옷을 입고, 승천이 자신의 가방을 쟁겨냈음을 알고 미소짓는다)

진 수 ; 안녕, 승천선녀님- (나간다)

# 40 절벽 (날이 새고 있다)

(사람들 세명이 웅성되고 있다. 승천의 신발, 머리뭉치던 띠 등이 보인다. 도술천 여주인과 그 사내가 달려온다. 사내, 승천의 신발을 움켜쥐다.)

사 내 ; (오열) 여, 영진아~ 영진아~.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 내...떨아...

여주인 ; (너무 놀라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 41 바닷가

(도술천 여주인이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정신없이 뛰어간다.)

# 42 바닷가로 나오는 길목

(진수, 바삐 걷다가 도술천 여주인이 뛰어오는걸 보고 몸을 숨긴다. 그러나 여주인의 심상치 않은 얼굴을 보자 이미 지나친 여주인을 부른다)

진 수 ; 아주머니!

여주인 ; (놀라서 뒤돌아 본 뒤, 달려와 진수의 어깨를 잡고 운다)

진 수 ; 아주머니- 무슨일이세요?

(순간, 진수의 뇌리에 승천이 떠오른다)

여주인 ; 지, 진수청년- (말을 잇지 못하고 운다)

아이고~ 불쌍한 것 (주저 않는다)

진 수 ; (가슴이 철렁한다)

아주머니, 승천씨한테 무슨일이 생겼어요?

여주인 ; (저우 들릴듯하게)

승천이, 승천이가 죽었다네~.

진 수 ; 에?? (얼굴이 하얗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승천씨가 죽다뇨! 왜요?!

(여주인을 붙잡고 혼든다)

여주인 ; (울퉁이며) 어젯밤에 어떤 사내가 와서 승천일 찾길래, 나는 모른다고 했제.

승천이가 그 사넬보고 도망을 치길래, 난 승천일 해꼬지하려는 인줄만 알고... 그란디, 바로 그사람이 ~ 그사람이 승천이 아버지 아닝가~.

진 수 ; 승천씨 아버지요?!

어주인 ; 난 대개 몰르겠당께.

왜 승천이가 지 아버를 보고 도망치고, 또...

아이고~ 승천아~.

#### # 43 절벽

(몇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승천의 아버지가 웅크리고 울고있다. 진수와 도술천 어주인이 뛰어와 선다)

동네여인 ; 참말로 불쌍한것... 그 꽃다운 나이에...

동네사내 1 ; 독한 것... 지 애비 가슴에 붓을 박아도 유분수지...

동네사내 2 ; 근디, 이 아지씨가 한 말이 뵤소리랑가?

승천이가 딸이고, 광주는 또 뵤 일인져?

동네사내 1 ; 알고봉께, 승천이가 승천인 까닭이 있었당께.

동네사내 2 ; 아, 알씨 고것이 뵤이당가요!

동네사내 1 ; (한숨)

모두가 그 징현 80년 봄 때문인가라.

아, 그때에 승천이는 약혼을 했는디, 약혼자 고

향인 광주에 같이 왔다가 그 난리를 겪은기라

. 근디, 고마 약혼자가 계임군놈들 총에 맞아

죽어 뿌렸다고 하네. 그것도 승천이 앞에서...

동네여인 ; 아이고, 저런 시상에-

동네사내 1 ; 그 일로 승천인 정신병원에도 한 1년 있었다  
대!

동네사내 2 ; 참말로 불쌍한 것.

동네사내 1 ; 그 뒤로 승천인 정신을 차렸지만서도 웃지도, 먹지도 잘않고 허공만 바라보고 하길, 한 3년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집을 나가 버렸다네.

(한숨) 그때부터 이분은 승천일 찾아 그리 해매고 다녔다네.

아, 그러다 저우 만날 수 있었는데, 그만...

동네여인 ; 시상애, 무슨 이리도 기막힌 일이 있는감.

아버지도 못보고... 시상애... (눈물을 찍는다)

참말로 불쌍한 인생이네...

동네사내 2 ; 쯤쯤~ 그즈부 광주항쟁이 사람 많이 잡는구마 . 생사람이 아직꺼징 죽고 있으너-

동네사내 1 ; (담배를 문다)

휴~ 징현 놈의 시상.

그나저나, 이곳은 바닷물이 밤으로 나가버려서 시신 찾기 힘들텐디...

승천아버지 ; (일이나 바위 끝으로 가까이 간다)

영진아~, 영진아~ (귀어짜듯 절규한다)

이젠 편히 쉬거라- 승천하거라~ 승, 천 하거라--

진 수 ; 육, 우육! ... (주저앉는다)

(사람들은 말이 없고 도술천 어주인의 울음소리만 들린다 . 진수, 충격에 하얀얼굴로 미동도 못하고 있다. 이때, 멀리서 경찰의 사이렌 소리. 진수, 움찔 놀라 벌떡 일어나서 달아난다. )

# 44-1 교도소 (- 3년후 -)

소 리; 뚜벅, 뚜벅 (발자국 소리)

소 리; "수번 317번 식방이다."

철컹!!

(교도소 철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 44-2 교도소 문 밖

소 리; 철컹

진 수; (나온다. 눈부신 햇살에 인상을 쓰며, 태양을 마주

본다. 오른쪽 옆구리에 두툼한 원고를 끼고 있다)

(자동차가 밟는 소리)

소 리; 선우형! 아, 선우야! 형!!

진 수; (소리나는 쪽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간다)

# 45 연안부두

(노을이 붉다. 진수, 부둣가 철책에 서서 바다쪽을 바라보고 있다. 노을빛에 얼굴이 붉다)

진 수; (나레이션)

아-- 노을!

도솔천은 아직 그곳에 있을까?

이젠 가볼수 있는데...

(담배를 켜다)

승천, 노을을 닮은 선녀님!

(주머니에서 승천의 엄주를 꺼낸다)

바다만 생각하면 그녀의 눈빛을 좇곤하는 부질없는 습관이 생기버렸어. 그녀가 죽은이에게 했던 그 봄

바람의 의식같이 어느새 그녀에 대한 그리움의 의식처럼 내게 자리잡아 버린건가.

승천의 연중행사...

광주는 아직도 묶인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을 허물고 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망가진 가슴을 홀로 헐고 있을까?

(배가 부두에 닿자 사람들이 내린다)

진 수; (물끄러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승천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곧 뛰어간다. 인파속에서 승천을 찾으려 하나 없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거야. (피식 웃는다)

# 46 표 개찰구

(진수, 짐문검색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증 소사를 받으려 여유있게 통과하며 배를 탄다)

# 47 배

(진수, 배의 난간으로 나온다. 사람 서너명, 뱃고동 소리.

배가 천천히 떠나기 시작한다. 진수, 부두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담배를 떨어뜨린다. 부두 철책 있는 곳, 아까 진수가 서있던 자리쪽에 승천이 노을에 물든채로 서있다.

진수, 다시 확인하지만 분명한 승천이다. 승천, 진수를 보지 못한채 노을속에 넘어가는 해를 바라본다. 진수의 눈에 눈물이 어리고 미소가 흐른다. 승천의 모습이 점점 멀어진다. 승천, 진수쪽을 바라보지만 이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거리이다. 진수, 가방에서 원고를 꺼낸다. 길봉투에 '도솔천

의 승천'이란 제목이 있다. 진수, 원고지를 한장, 한장 바다로 날린다.)

#48 바다 (배와 부두)

(부두에서 떨어지는 배. 배에서 흰 종이들이 바다로 춤을 추듯 떨어진다. 바람이 종이들을 부두쪽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끝]

1992년 7월.

\*제목; 『우리의 꿈』

- 채 덕신

S#1 ; 마당 안.

(서울 변두리 00동 재개발 지구인 산동네.

판자집같이 허름한 한옥집. 기지형 안채와 조금 떨어져 꼬꼬만 별채가 있으며 그것들을 경계로 거의 정방형의 모양으로 낮고 다스러져가는 나무대문 사이에 두평 남짓한 좁은 마당이 이루어진다. 마당에는 수돗가가 있으며 한켠으로 변소도 있다.

어름날 아침, 그리 늦지 않은 시각임에도 마치 봄날의 한낮처럼, 둥근 해가 좁은 마당을 아주 환하게 비춘다.)

(수돗가에 우리가 쪼그려 앉아 있으며 엄마가 한손으로 포옥 감싸 안고서 세수를 시켜준다)

엄마: "흥!.. (쪼꼬맣고 낮은 우리의 코를 두손가락으로 꼬옥 눌러 빼쪽하니 만든다)

우리: "힝! 힝!.. (얼굴에 힘을 주며 두번씩이나 킁킁 댄다)

(엄마, '뽏드득' 소리나게 우리의 작은 얼굴을 빼앵들러 물기를 닦아낸다)

(아직 물기가 남아 가느다랗게 반짝거리는 조막진 어린 손목에 노오란 수건이 감긴다)

우리: "엄마아~든데에~노페얼드 언제다아~.. (얼굴과 가느다란 목을 닦으며 묻는다)

(엄마, 몹시 서둘러 세수를 한다)

우리: "세반 자면?응!..

(엄마, 대답도 않고 대충 세수가 끝나자 수건을 받아다 얼굴을 닦고는 안채쪽으로 걸어간다)

엄마: (안채를 향해 진짜로 직접 대놓고 인사를 하듯 허리를 깊이 굽는다) "아주머니 저 갈게요~우리 부탁할게요, 번번히 좌송해요~..

아줌마: (안채에서 소리만 들린다) "내에~어여 다녀와요 잉!..

[늘 부담을 드리는게 미안하고 무엇보다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에게 같이 바래다 주지도 못함이 죄스러운듯 항상 요때가 되면 엄마의 얼굴은 수돗가 붉은 세숫대야처럼 몹쓸빛이 되고입니다]

(문턱에 앉아 빼꼼히 엄마를 보고있는 우리는, 여즉 앞머리카락이 축축히 물기를 머금고 있어 더욱더 작은 얼굴이랑 빨간 꽃무늬 원피스가 조그만 애기 토마토 같이 반짝인다)

(엄마, 애기 토마토에게로 다가와 흐트러진 앞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주며 멍하니 일러준다)

엄마: "우리아 먼데가서 놀면 안된다~알았지..

우리: "내에~..

엄마: "새싹방 끝나면 곧장 와야한다, 그리고 이상한 아저씨가 뭐 사준다고 오라 그래도 절대 쫓아가면 안돼요~, 알았지!..

(안심이 안되는 듯 더 다그쳐 말한다) "무서운 아저씨가 와왕하고 우리를 잡아먹는거야..

우리: (다소 무서운듯 조용히 대답한다) "내~에~..

엄마: "그리고 조기 뒤에 가서 놀면 안돼! 접때처럼 또 발에 피나고 막 아프니까~알았지..

우리: “네에~, (그때의 곤혹스런 일을 떠올리거나 하듯 찡찡한 표정이다)  
 엄마: (시험 치루듯이 어깨를 툭 잡고서 물어본다) “아빠 이름?,  
 우리: (고새 표정을 바꾸며 모박모박 대답한다) “한짜아~스짜아~안짜아,  
 엄마: “엄마이름?,  
 우리: “도오~, 수우드~, 짜아~,  
 엄마: “집 전화 번호?,  
 우리: “요오디!, (가슴팍에 주소가 적힌 하트 모양의 뺨지를 가르킨다)  
 엄마: “그럼 아따 보자~선생님 말씀 잘듣고, 아줌마 말씀 잘듣고요,  
 ‘쪽’ (뺨뺨를 하고 대문으로 나가며 빠빠이를 한다)  
 우리: “빠빠아~, (손을 흔들고 나서 그자리에 쪼그려 앉는다)

(우리, 문턱에 쪼그려 앉아 새싹방에 같이 가기위해 국민학교 4학년짜리인 주인집 아들 종호를 기다린다)

우리: “쫘노오빠아~빨라와~ 쫘노오빠아~. . . . .,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듯 바로 자기 구두를 만지작거리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른다)  
 ‘으쫘, 으쫘, 으쫘으쫘으쫘 . . . . .’ (어깨와 팔까지 노래에 맞춰 흔든다)  
 (또 한차례 불러본다) “쫘노오빠아~,  
 (안채 안방 문이 드르륵 열리며 종호가 나온다. 주인집 아줌마도 밥상을 들고 쫓아 나온다)  
 종호: (신발 신기전 가방을 등에 맨채 엄마한테 손을 내민다) “엄마, 돈!,  
 아줌마: “뭘돈?,  
 종호: “이천원!,  
 아줌마: “뭘 이천원?,  
 종호: “스케치북 사야돼에 빨랑~,  
 아줌마: “그걸와 아저사 말하노~오제밤 아버지한테 말하제~. . . 돈 읊따!,  
 종호: “아빠 어제 늦게 들어왔잖아~빨라줘어~빨랑 가야돼~,  
 (늦게 본 자식임이 쉽게 짐작이 갈 정도로 거의 할머니같아 보이는 주인집 아주머니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풍사령 거리면서 차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천원짜리 두장을 꺼내준다)  
 종호: (싸이익 웃으며 기뻐한다)  
 아줌마: “니 돈 남가다 오락실 같은데 가면 안된다 알았제!,  
 종호: “네에~우리아 가자,, (신발을 신으며 들은듯 만듯 건성으로 대답한다)  
 (우리, 우두커니 서있다가 쪼르르 달려가서 손을 잡는다)  
 종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꾸벅 절을 한다, 우리한테도 인사하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서 고개를 숙이게 한다)  
 우리: “하또 다녀 오맏습니다,,  
 아줌마: “이앙~그라 조심해서 다녀와라~ 쫘호 니 잘태블꼬 가그라 잉!,

S#2: 대문 앞.

(대문을 나오면 바로 뒤쪽으로 철거를 해서 무너진 집터를 끼고 등성이르 돌아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아래쪽으로는 차가 다니는 큰길로 내려오는 길이 있다)  
 (대문 바로 앞에 돌이 떡 버티고 선다)  
 종호: (우리 손을 잡은 채 앞쪽길 아래쪽길을 번갈아 쳐다보곤, 다시 짐짓 산증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본다, 이내 싸이익 웃는다)  
 우리: “. . . . . (이상해서 가만히 쳐다보기만 한다)  
 종호: (앞쪽길을 향해 아주 절도있게 몸을 확하니 튄다) ‘척!’  
 우리: (따라 해본다, 그러나 그냥 뺨뺨듯이 돈다)  
 종호: (한껏 무개를 잡는 몸짓으로 손을 높이 들고 소리친다) “가자!,  
 우리: “다자~,  
 (꼬불꼬불한 요술의 집을 향해 구슬 굴러가듯 뺨구르르 뛰어간다)

S#3: 골목길.

(다다다닥 붙은 집들 사이, 중간중간 철거를 당해 허물어진 집터들이 보이는 꼬불꼬불한 길을 돌이 손을 꼬옥 잡고 걸어간다)  
 [앞쪽으로 등성이를 돌아 넘어가면 00동 산동네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시설인 새싹방이 나옵니다. 종호네 학교 가는길에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국민학교 4학년짜리 꼬마인 종호가 어엿한 어른처럼 진짜 친오빠처럼 능글능글하고 자랑스럽게 바래다 주는 것입니다]  
 종호: “프래곤 보올, 프래곤 볼, 찾아 나싸어자~. . . (뭘가 신이 나는지 만화영화 주제가를 신나게 부르며 텅텅 거린다)  
 우리: “프래곤 보오~. . . , 나싸자~. . . , (가뜩이나 발음이 안되는 짧은 혀로 쫓아하느라 애를 쓰면서도 덩달아 신나서 텅텅 거린다)  
 종호: “렛 프라이, 렛 프라이, 래렛 프라이~, (노래에 맞춰 팔을 쭉 뻗었다가, 접었다가, 돌렸다가, 박력있는 울동을 펼친다)  
 (우리,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인지 오빠가 하는게 너무 멋있어서인지 반짝반짝 거리는 눈동자를 더욱 톱그렇게 하고 쳐다보며 걷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엄마, 큰선생님 담으로 종호를 켈로 좋아합니다]  
 (저 앞쪽에 직각으로 깎어진 골목길 모서리를 향해 들은 그렇게 쭈쭈 뻗어나간다)

S#4: 조금 큰길.

(조그만 구멍가게를 오른쪽 옆으로 두고, 봉고차 한대가 낙낙히 지날수 있을것 같은 조금 큰길이 다소 시원하게 뚫려있다.  
 갑자기 그 옆구리 좁은 골목길로부터 종호가 뿔겨쳐 나온다)  
 (종호, 고개를 뒤로 척 저치고 두팔을 가슴으로 끌어모아 짐짓 거짓으로 핵! 핵! 가리며 연신

발을 굴른다, 이내 방향을 틀어 도로 자기가 나온 구멍을 향한다)  
(이제 우리가 풍하고 튀어나온다)  
(우리, 헉! 헉! 헉! . . . , 오빠를 따라하며 숨차한다)  
(종호, 착! 착! 절도있게 멈춘다, 그리고 아직도 숨차서 헉헉 거리는 우리의 손을 잡는다)

S#5 : 구멍 가게안.

(바로 입구근처에 껌, 초콜렛등이 쌓인 판매대를 향해 우리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킨다)  
우리: "새돈달돈,,

S#6 : 가게 앞.

(갈가에 서서 종호는 카라멜을 하나 까서 자기가 먹고 또 하나를 까서 우리에게 건네준다)  
종호: "으으~ 사야~,, (TV광고에 나오는데로 몸을 떨며 우스운 사냥을 한다)  
우리: "아싸아~아싸아~,, (얼굴도 찌르리고 머리까지 설레설레 흔들며 진지하게 따라서한다)  
(이제 다시 건너편 길가 쪼그맣게 터진 골목길로 쏙쏙 빨려들어간다)

S#7 : 새싹방 앞.

(다닥다닥 지쳐 달라붙은 산동네 집들 사이로 조금 커보이는 개량형 양옥집이 우리네 놀이방이다. 빨간 색갈의 철대문이 있고, 그 위 플라스틱 판에 '새싹방'이라는 예쁜 글씨가 귀여운 모습의 색종이 꽃들을 배경으로 적혀있다)  
(이제 드디어 들은 새싹방 빨간 대문 앞에 도착한다. 그리고 종호는 가기서 헤어지지 않고 일부러 현관 문앞까지 들어온다. 그 비좁은 현관 뿅뿅히 줄지어 늘어진 신발들을 마구 밟으면서까지 가어코 우리 손을 꼭 잡고 마루 바로 앞까지 쳐들어가는 것이다)  
종호: "선생니암~선생니암~,, (자랑스러운듯 뿌듯하게 외친다)  
(그러자, 쪼로록 아주 이쁘게 생긴 작은 선생님이 나온다)  
작은선생님: "오 그래 우리 왔니!,, (반갑게 맞이한다) "오늘도 오빠랑 같이 왔구나!,, (우리 손을 잡고 신발 벗는 걸 도와준다, 그리고 나서 뻔뻔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종호를 보며 반갑게 웃는다)  
"아이 참 착하기도 하지,, (종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종호: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좋아한다) '해~'  
(마루로 올라온 우리는 주머니에서 카라멜을 꺼내 하날 까서 입에 넣는다)  
작. 선: (마루로 올라온 우리를 챙기며 다소 어색할 정도로 얼굴이 붉어져 있는 종호를 쳐다보며 한마디 건넨다) "수고 했어요~,,  
(진짜 어른인것 처럼, 어엿하게 동생을 배려다 주는 의젓한 오빠이긴 하지만 여전히 선생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다운 순박함이 사랑스러운듯 살짝 웃어 보인다)  
종호: (좋아서 '해~' 웃는다)  
작. 선: "자아 오빠한테 인사 해야지!,, (가만히 서서 오물오물 거리는 우리 손을 잡고 인사

시킨다) "잘가요~. 오빠 안녕 해야지!,,

우리: "웅웅웅. . . ,, (입안에 카라멜이 들어있어 발음을 제대로 못하며 손만 흔든다)  
종호: "안녕히 계세요~,, (하리를 숙여 진짜 학교 선생님 한테 인사를 하듯 깎듯히 굽힌다)  
[종호에게 작은 선생님이 천사같이 보입니다. 종호는 이제, 가방 끈을 붙끈쥐고 하늘나라로 날라갑니다]  
(우리는 작은 선생님이랑 손을 잡고 큰방으로 들어간다, 머리를 흔들며 폴짝폴짝 거리면서. . . 아싸아~아싸아~하면서, 어깨까지 삼하게 떨어 본다)

S#8 : 새싹방 안.

[우리네 새싹방은 아주 작습니다, 방 두개가 전부입니다]  
(좁은 마루 한쪽에, 아이들 간식들을 만들거나 간단한 선생님들의 식사 준비를 할수있는 조그만 부엌이, 벽면을 막고 버타어선 작은 찬장하나와 낮은 썩크대 한쪽으로 이루어져있다.  
오른편으로는 이쁜 색종이로 『아기방』이라고 써여 붙여진 작은 문이 조용히 닫혀져 있고, 마루 왼편으로는 큰 방의 문을 터서 마루와 연결시켜놓은, 이제 우유를 떼고 저 혼자 걸어다닐수 있는, 아이들끼리 작게 놀수있는 조그만 운동장이 마련해있다)  
[새싹방에는 우리 또래의 아이들이 가장 많고 조금 있으면 학교에 들어가는 큰애들도 비싼 유치원이나 속셈학원 같은 곳 대신으로 몇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큰방, 문없는 문턱을 넘어서면 정면으로 얘기 간이침대같이 칸칸히 만들어 놓은 키작은 장난감 받침대와 그위에 가지런히 놓여진 장난감들이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하면서, 색색갈 종이들을 통과한 아침햇살과 더불어 조그만 놀이방을 환상적으로 만든다)  
[이 동네가 철거당하기 전에는 인근처 아이들 거의 모두가 몰려들어 선생님도 아절때는 다섯명까지 있었을때가 있었고, 지금도 오전에만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비누거품 일듯 폭! 폭! 거리며 놀고있습니다]  
(구석구석으로, 뽀빠부터와서 놀고있는 두서너명의 아이들이 보인다, 그리 비싸보이지 않는 옷들로 수수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아주 친해져 있는지 선생님이 없어도 아주 잘놀고 있는것 같다)  
(작은선생님, 우리를 데리고 장난감 미끄럼틀 주변에서 놀고있는 아이들 있는 곳으로 간다. 용기종기 놀고있는 다른 아이들의 손을 잡아 사이좋게 놀라는듯 한테 모여놓고 뭔지 할일이 있어 잠깐만 너희들끼리 놀고 있어라하는 부탁의 미소를 짓는다)

[우리는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 잘 어울려 노는 편이긴 하나 오히려 칸난아이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선생님을 쥘로 좋아하는데 진짜 엄마처럼 푸근함을 느껴서인지 기회 있을 때마다 쫄쫄 좇아다닙니다]

작. 선: "자 동무들이랑 놀고 있어요 선생님 금방 갔다 올께요~, 국잔아 성룡아~자아~선생님 올때까지 우리랑 사이좋게 잘 놀고 있어요~, (국잔이 손을 잡아다 우리손을 건네며 당부한



다, 아내 들어서 작은 방으로 향한다)  
 국잔이: “. . . . .” (아무 대답도 안하고 그냥 손에 잡힌대로 우리를 끌고 미끄럼틀로 오르려 한다)  
 우리: “. . . . .” (역시, 그냥 따라 건다가 미끄럼틀 계단 앞에서 손을 놓고선 다시 돌아선 다, 아내 애들이 놓고 있는 사이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와 작은 방을 향해 나간다)

S#9: 작은 방.

(간난아이 두명이 뽕송뽕송한 이부자리에 누워있고 큰 선생님이랑 작은 선생님은 또 다른 애기 들을 안고서 맘마를 주고있다)  
 우리: (문을 삐뚤히 열고 들어와선 큰선생님 곁으로 다가선다) “선생나~임,  
 작. 선: “응응 그래 금방 갈게요~” (한손으로 애기를 안고, 또 한손으로 애기 맘마통을 꼭잡 고 흔들며 주며 서두르듯 대답한다)  
 우리: “선생나~임, (큰선생님 곁에 바짝 붙어서 다시 한번 부른다)  
 큰선생님: “응응~ 우리 안녕!, 오늘도 오빠가 데려다 줘니?”, (살짝 돌아보며 다감하게 묻는다)  
 우리: “네에~”  
 큰. 선: “우리는 착한 오빠가 있어서 좋겠다, (계속해서 두팔은 애기를 안아 흔들며주고있다)  
 우리: “선생나임 든대예요~뽕뽕하네요?”, (애기를 보려고 바짝 다가서며 묻는다)  
 큰. 선: “이쁘지 우리야! 이봐 참 귀엽지, (우리가 볼수있도록 애기를 살짝 들어 돌려 보여준다)  
 우리: “네에~. . . . .” (잠시 망설이다가 살며시 그 조막손으로 애기 볼을 만져본다, 그리고 씨익 웃어 보인다) “하아~다여워,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며 환히 웃는다)  
 큰. 선: (그것 자체가 귀여운지 같이 살짝 웃어보이며 무슨 큰 비밀이라도 되는 듯 우리에게 살짝 묻는다) “우리야?우리도 이답에 크면 엄마 한다고 그랬지!,,  
 우리: “네에~, 든선생나임 다른 엄마 하따예요!,, (씩씩하게 대답한다)  
 큰. 선: “뽕뽕루루 짹!,,  
 우리: (조심스레 또 한번 애기 볼을 만진다, 아기도 베시시 웃는다)  
 큰. 선: “어머! 현규도 누나가 좋은가 보다,  
 우리: (신나서 선생님처럼 따라 해본다, 머리까지 흔들면서) “딱뽕! 딱뽕!,,

(작은선생님, 분유를 다먹이고 나서는 애기를 바닥에 눕혀놓고 우리한테로 다가온다)  
 작. 선: “자 우리야 이제 큰방으로 가자~, 애기들 코오 자야해요~, (우리 손을 잡고 달래듯 말한다)  
 우리: “. . . . .” (늘 그래온 것처럼 아무말도 않고 손에끌려 큰방으로 가면서, 선생님한테 하 는건지 애기들한테 하는건지 손을 들어 흔들며 준다)  
 큰. 선: “응응~빠빠아~,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든다)

우리: “. . . . .” (못내 아쉬운듯 더 할말이 있다는듯 바라보다가, 사들러 소리도 갑자기 커지며 황급하게 입을 연다)  
 “선생나임~ 든대예요~, 좀 잇따 또 오빠예요~,  
 큰. 선: “응응~, 쉬아~, (귀여운듯 살짝 웃으며 입에 손을 대는 시늉을 한다)  
 우리: “시아~, (따라서 시늉을 하며 방을 나선다)

S#10: 큰 방.

(확실히 방이 바좁은 감이 들 정도로 아이들은 구석구석 박혀 저마다, 까라까리, 장난감을 들거나 그림책을 그리거나 미끄럼을 타거나 인형놀이를 하거나,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살아간다)  
 [열두명의 아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서에게 인사를 나누며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나눠먹어가며 또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조금 키보이는 사내아이 사내명이 한데 뭉쳐 있다, 그 중 한아가 우뚝 선 채로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짓는다. 옆의 또 다른 아이 하나가 빨간 보자기를 펼쳐, 삐작 서있는 아이의 목에 빨간 망토를 걸쳐준다)  
 [우리처럼 오전반만 하고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녁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아이들은 오후 반 아이들과도 어울려 놀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 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옷차림을 한, 태여났살 뒹박한 꼬마아이 하나가 말쑥하니 아이들 노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바로 그아이의 머리 하나 정도 밀므로, 확실히 형제지간 임 이 분명하게 보이는 똑 닮은 꼬마아이가 형의 넓적다리를 양 손으로 꼭 부여잡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6시가 넘어서도 엄마가 찾으러 오지않아 큰 선생님이랑 아주 킁킁해질 때까지 남아 있을때도 있습니다]  
 (이젠 여자아이들의 한 무리가 등장한다, 계중 큰아이 들을 중심으로 두어명의 꼬마들이 뭉쳐 종이로 만든 인형놀이를 하고 있다)  
 [또 어떨때는 그 애들 중 몇몇이 우리처럼 낮에 돌아가는 애들을 따라 자기들도 집에 가겠다고 땡장을 부러 간혹 선생님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여자아이들 무리속에서 두명의 아이들이 튀어나와 서로 손을 잡고 장난감이 놓여있는 선반을 향해 걸어간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기들 노는것 보다 더 재미나게 노는것만 같으면 금방 똑같이 따라하곤 합니다]  
 (둘이 끽끔 대며, 키 작은 선반위에 올려진 블럭놀이 박스를 힘겹게 끌어내린다, 쿵탕탕!)  
 여자아이1: “마에야?우리가 빠슈우 만들자 빠슈!, 응?,,  
 여자아이2: “응응~자아 이거 나해고 이진 나해고. . . . (이것저것 잡아서 아무거나 건네주며 요란스럽게 굴기 시작한다)  
 [그쯤대면 미끄럼틀 타고 놀던 남자아이들까지도 블럭놀이 하는 데로 몰려와 우당탕탕 사끌뽕

적하게 놀게 됩니다]

(쏟아부은 블럭들을 중심으로 어느 덧 커다란 원의 형태를 만들어가며 아이들은 사뭇 진지하게 이것저것 같다가 판가를 열심히 만들려고 애를 쓴다, 옆에 아이에게 자랑하기도 하면서. . .)  
(우리도 그림책에 색칠을 하다가 어느새 블럭놀이 하는데로 쫓아왔는지, 조금 큰 사내아이들 틈에서 열심히 블럭을 주어다 쌓고 있다)

[근데 작은 장난감을 아이들이 한꺼번에 갖고 놀자 금방 모자라게 됩니다]

우리: (블럭을 또 하나 주어 올리려고 앞쪽에 놓여진 네모난 블럭을 잡으려 한다)

현빈: (앞에 앉아 마찬가지로 블럭을 쌓다가 우리가 이미 잡은 것을 뺏으려고 허리를 주욱 당겨 블럭의 끝을 같이 잡는다)

우리: “. . . .” (아무말도 못하고 그저 끝까지 꼭 잡고 놓아주질 않는다)

현빈: “. . . . ?..”

“에잇!..” (끝내 확 잡아당긴다)

우리: (그만 방바닥에 앉으며 아양 울고 만다)

(옆쪽에서 애들을 챙기던 작은 선생님이 음음소리에 깜짝 놀라 이내 우리한테로 달려온다)

작. 선: “우리아 괜찮니?..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얼굴을 쓰다듬는다. 금방 사태파악이 됐는지 현빈이를 돌아다 보며 손을 꼬옥 잡고 타이른다)

“친구들끼리 장난감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하죠?.. (약간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묻는다)

현빈: “. . . .”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입만 삐죽 나와있다)

작. 선: “사이좋게 놀아야 돼요~.. (이제 확연히 부드러운 어조로 달랜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돼요~.. (현빈의 얼굴에 바짝 가까이 하며 다정하게 타이른다)

현빈: “. . . .” (여전히 뽀로통해 있다)

작. 선: “자아~ 우리아 이제 괜찮지!.. (한손으로 현빈의 손을 잡고 우리를 끼안으며 달랜다) “자아~이제 사이좋게 앉아서 놀아요~..”

현빈: “. . . .” (자기만 혼나는게 화가 나는지 드디어 짹 짹 거린다) “씨아~, 울 엄마가 여자한테는 지면 안된다고 그랬단 말예요~ 씨아~..”

(작은 선생님의 온화하고 따스하던 얼굴이 갑자기 멍해진다)

작. 선: (아이가 없다는 듯 현빈을 쳐다보면서 다시 두손을 꼬옥 잡는다)

“현빈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남자가 꼭 여자한테 이겨야만 하는것은 아니란다..”

현빈: “. . . .” (선생님의 굳은 얼굴을 보고 끄떡 했는지 짹 짹 거리는 걸 멈추고는 가만히 있다)

작. 선: “그리고 우리는 동생이잖아~ 나는 내년이면 학교에도 가잖니? 서로 사이좋게 놀아야지! 자 아서~..”

현빈: “. . . .” (이제 더이상 흥미가 없다는 듯 푹! 우리에게 블럭을 건네주고 미끄럼틀로 뛰어간다)

[어느덧 아이들도 하나 둘씩 다른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빈이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재근이와 같이 신나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온다, 빨간 망토를 목

에 두른 재근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자 마자 폴짝! 뛰면서 외친다. ‘지구방위대! 후, 레, 쉬, 맨!’ 손에도, 길죽하니 생긴 블럭 하나를 들고선 온방을 퐁퐁퐁퐁 튀어 다닌다)

S#11: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싹방울 끝낸 우리는 아침에 오빠랑 걸어왔던 길을, 몇 일 전만해도 그림이랑, 마순이랑 손 잡고 가던 길을 이제 혼자서 돌아갑니다]

(어디서 났는지 조그만 막대기를 하나 들고서 밖에서 찌익찌익 끌면서 걷는다, 그것 자체가 그리 재미난 장난은 아닌듯 그저 답답하게 토탕토탕 걸을 뿐이다)

우리: “우리 오빠야 마야 타도오 서우우 다야시마~.. (흥겨워 서리기 보다는 그저 혼자 걸가에 심심해서, 혹은 무서워서 조용조용히 불러댄다)

“비디안 두우두 사/.. (천천히 골목길을 돌아서자마자 저쪽 끝에서 한 아저씨가 마주오는 것을 보자 노래를 딱 멈춘다)

“. . . . .” (그 자리에 꼼짝않고 서서 점점 다가오는 아저씨를 바라본다)

행인: “. . . . .” (지나가던 아저씨도 꼬마아이가 딱 멈춰선게 이상한지 계속 우리를 쳐다보며 점점 우리쪽으로 걸어온다)

우리: “. . . . .” (계속 그자리에 꼼짝않고 있다가 이상한 아저씨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만 막대기를 놓쳐 버린다)

행인: (괜히 겁을 먹는 아이가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미안해서 인지 우리 옆을 지나면서 한마디 한다) “고놈 참 이쁘게 생겼다!..”

(아저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때까지 끝까지 쫓아보고 있던 우리는 다시 막대기를 주어들고는 뒤돌아 토탕토탕 걸어간다, 다시 노래 소리가 들린다)

S#12: 집 근처 골목길.

(우리네 동네 골목길, 주변에는 철거를 해서 쓰러진 집터들이 많이 보이며 가끔 온전한 채로 아직까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이, 오히려 더욱 초라하고 불품없이 보이기만 한다.

우리, 어느 무너진 집터 앞, 할어누운 대문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발길을 멈춘다)

우리: “미순아 잘다아~, 내일 보자아~ 안녕.. (손까지 흔들고 나서는, 다시 갈길을 간다) [커서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던 미순이는 이시간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왔을 쯤, 뒤 돌아 본 발자욱위엔 허름한 집 몇채와 텅뚫린 빈터들이,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벌려진 채, 이빨빠진 할머니의 쪼그라진 입술처럼 불쌍 사납게 줄지어 있다.

우리, 그 모양이 무서운듯 고개숙이며 움추려 뒤돌아 서다가 또 한번 멈춰서, 눈을 뚱그랗게 뜨고 뭔가 신기한걸 발견한 듯 어른처럼 고개를 가우뚱! 해본다)

(저만치 우리네 집이, 바로 뒷집 허물어진 담벼락 너머로 낮익은 지붕과 함께 굴뚝 밑둥이까지 들어내며 나타난다.

그 동안 뒷집 밖에 가려져 숨겨져왔던 지저분한 얼룩들과 겨울 나무 가지처럼 삐적삐적 갈라진 굵은 줄들이 박혀있는, 우리네 안채 뒷벽이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움도 잃은 채 현한 대

낮 햇살에 하얗게 뒤집혀져 있다)  
 우리: (다시 총총총 걷다가 오른쪽 옆으로 순간 반짝! 이는 무엇인가를 보고 돌아선다)  
 “. . . 음? . . .” (서서히 오른쪽 쓰러진 집터쪽으로 발길을 내 딛는다)  
 [얼마전에도 우리는 곰인형을 주으려다가 신발에 못이 박혀 한발짝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며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반짝인게 무엇인지 끝내 찾아 내려는 듯 용감히 쳐 들어갑니다]  
 (조심조심 찢어진 벽지, 토막난 전선줄 같은 잡동사니들을 들추며 조금씩 조금씩 안으로 들어간다, 거의 한 가운데 까지 들어와서 널려진 판자를 가까스로 밀어내자 쪼개진 찬장 문틈 사이에 하얗고 쪼꼬만 무언가가 보인다.  
 우리, 킁킁대며 찬장 문을 완전히 들쳐낸다, 쿠당탕!  
 간장 증지 같이 작은 사기 그릇이 다 찌그러진 주전자 앞에 놓여있다.  
 우리, ‘하아~’ 아주 대단한 것을 발견한 듯 환화에 찬 얼굴을 하며 조심스레 줍는다.  
 갑자기 왈왈왈 거리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놀라서 자고 있다가 쿠당탕 소리에 췌는지 꽤나 신경질적으로, 바로 위쪽 판자대기 담이 삐그덕 거릴 정도로 아주 흥분된 듯 마구 짚어댄다.  
 우리, 깜짝 놀라 쪼르르 뛰쳐 나온다, 두손으로 하얀 증지 그릇을 꼭 쥐고서. . . .)

S#13: 우리네 집, 마당.  
 (좁은 마당에서 주인 아줌마가 빨래를 하고 있다. 판자 대문이 삐익 열리며 우리가 마당으로 들어선다)  
 우리: “헉! 헉! . . . 아줌마 다녀왔습시다~.”  
 아줌마: (빨래를 하다 우리를 반기며 말한다) “이양~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노? 배고프제? 후딱 가방 갖다놓고 온나~ 손씻고 밥묵자~.” (빨래를 일단 정리하며 밥 차릴 채비를 한다)

S#14: 우리네 방.  
 (드르륵, 방문이 열리고 뭔가 찡찡한 표정의 우리 얼굴이 처진 어깨와 더불어 쓸쓸하게 보인다. 방안은 깨끗히 정돈되어 있어 넓어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텅비어 있는 허전함이 더 해보인다.  
 우리, 방에 들어서지도 않고 바로 문 앞에다가 보조기방을 벗어 놓고 다시 문을 닫는다)

S#15: 마당.  
 (우리, 수돗가에 쪼그러 앉아 조막진 두손으로 전리품을, 사기그릇을 정성껏 닦는다, 뽐드득!  
 아줌마: (밥상을 들고 마루로 올라간다) “아이고요~ 우리가 혼자서 세수 했노?,”  
 (밥상을 놓으며) “어여 올라와 밥 묵자,  
 (수돗가에 남겨진 증지 그릇이 햇빛을 받아 더욱 반짝! 인다)

S#16: 우리네 집 바로 뒤 허물어진 집터.  
 (어느집 대문앞, 두 단계 낮은 계단이 이루어진 문턱 앞, 여기 저기 널려진 나무 작대기, 판자들을 밟고 서 있는 우리의 작은 구두 두쪽이 나타난다)  
 우리: “드림아~ 노을자~,”  
 “드림아~ 노을자~, 빨이 나와, 내다아~ 이쁜더 하나 주어따! . . . . .” (입을 한껏 벌려 소리 높여 부른다, 진짜처럼)  
 (잠시 서있다가 이내 문턱을 넘어서 들어간다) “뽐자작!,” (밟혀 있던 작대기가 신음 소리를 토해낸다)

(철거를 해서 나무판자랑, 책 꺾테기랑, 옷가지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다. 그 가장자리로 우리 키보다 약간 큰 담벼락이 허물어진 채로 남아있고, 그 앞으로 콘크리트로 된 조그만 평지가 남아 있다.

그 바닥 위, 깨진 불럭위에 우리가 걸터앉아 담벼락을 바라보며 그 조그만 등을 오르린 채 뭔가를 열심히 중얼거리며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  
 우리, 새싹방 큰 선생님이 얘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나무토막에다 찢어진 옷가지를 덮고 서는 진짜 얘기 마냥 꼬옥 안고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다)  
 우리: (흔드는걸 멈추며) “자아 애다야 맘마 멋짜아~,” (얘기를 옆에다 살며시 놓으며 아까 주은 사기 그릇에 흙을 담고 나무꼬다리로 콩콩 찡는다, 그러다가 흙을 좀더 담고 서는 또 몇 차례 콩콩 찡는다) “엄마다아~마신는더 해줏때에~,”  
 (옆에 얘기를 바로 앞 담벼락에 비스듬히 세운다) “애다아~엄마랑 밥멋짜아~, 밥멋또 엄마다~노라주때에~,” (자기는 안먹고 얘기 한테만 떠먹인다)  
 “엄마랑 노페얼드요~, 노페얼드 다시 토따리도 보도오~ 디차도 타도~ 풍선도 시주때에~,”

(허얗게 오후의 햇살을 받아먹는 허물어진 담벼락 앞에 쪼꼬만 그림자 늘어 놓곤 중얼중얼, 혼자서 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위 아래쪽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난 폐허의 울타리 속에서 더 더욱 작고 쓸쓸하게만 보여진다)

아줌마: (대문을 열고 나와 주위를 살핀다) “우리아~ 우리아~,”  
 (소리를 지르며 뒤쪽으로 돌아간다)

S#17: 방 안.  
 (우리, 방안 한 가운데 앉아서 그림책 위에다 크레용으로 색칠을 하고 있다, 굵은 선으로 태두리가 쳐져있는 강아지 그림위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선 짧은 크레용을 힘주어 꼭 쥐고있다 강아지는 눈과 귀만 남겨놓고, 검은색 굵은 태두리선 바깥까지 파란색 색깔을 삐죽삐죽 튕겨내며 두텁게 뒤 범벅이 돼있다, 삐죽삐죽 나온 선들이 진짜 강아지 털 처럼 복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그림책은 펴져 있는 채로 그대로 있고 우리도 조그맣게 엮어져 자고 있다)

(책도 차워지고 코끼리니, 기린이니 하는 동물이 그려진 이쁜 이부자리 위에 우리가 썩근썩근 잠들어 있다)

(꿈,  
'왕! 왕!' 그림책속에 강아지가 아쪽저쪽 왔다 갔다 하며 짹짹, 우리한테로 뛰어오며 아주 귀엽게 짖는다. . . , 그러다가 갑자기 입도 커지고 귀도 커지며 마구 짖는다. '왈왈 으르릉~. . . , 왕! 왕!, 또 작아져서 이쁘게 웃는다)

우리: "앗 따다아~, (그만 뭔가 따끔따끔한 것이 얼굴을 찌르는것 같아 눈을 뜬다)

아빠: "으~음, 귀여운 우리 공주님!,, (얼굴을 아주 가까이 대고선 누워있는 우리를 귀여워 주겠다는 듯이 쳐다보며 웃고 있다)

우리: "아빠아~, (누운 채로 두 팔을 뻗어 바짝 붙은 아빠의 목을 껴안는다)

아빠: (껴안긴 채로 우리를 일으켜 안아서 한번 높이 치켜 올렸다가 내려 놓는다) "어어쿠!  
우리 공주님 아빠 한테 뽀뽀!,,

우리: "쪽!,,

아빠: "아쪽도!,,

우리: (금방 잠에서 깨어나 아직 얼떨떨한게 남아 있는지, 약간은 멍한 얼굴의 한쪽 볼이 아빠의 두터운 손가락에 의해 살짝 꼬집혀져 일그러진다) '어어구 이쁜거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듣고?' (이제,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멍한 상태를 떨쳐버리려고 나름대로 애쓴다)  
"네에~든데요~, (손등으로 눈가를 살살 비비 면서 말한다, 순간 우리의 눈은 옆으로 주욱 찢어졌다 돌아온다)

"아빠아 든데요~오늘! 쫄노빠다 새콤달콤 사졌따아!,, (끝부분에 확실한 강세를 놓으며 아빠한테 자랑한다)

아빠: "뭐? 새튼다톤? 새튼다톤이 뭐야아? (뉘말인지 몰라 의아해 하며 묻는다)

우리: "으~음 새튼다토음! 멍는타어. . . (안타까운듯 열심히 설명해 준다, 아싸여 아싸여 하며 얼굴도 찌푸려 가며)

엄마: "오늘 종호 오빠가 새콤달콤 사졌니?,, (부엌에서 상을 들고 들어오며 묻는다)

우리: "네에!,,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구나 하듯 일단은 기분 좋게 대답해 놓고선, 또 뭔가를 얘기 할려는 듯 서둘러 입을 뗀다) "엄마~든데요~,

아빠: "어어쿠! 우리 공주님 이거 7 발음을 못해서 어찌나~, (진짜론 하나도 걱정되지 않는 듯 하아~웃으며 꼬옥 껴안는다)

우리: "아빠 든데에 오늘 현비니다 새까뽀뽀에서 나를 미렸따아!,, (아빠 품에 안겨 뽀뽀히 쳐다 보며 낮에 있던 일들을 신나게 이른다)

아빠: "음! 누가 감히 우리 공주님을 때렸어!,, (짐짓 얼굴을 근엄한 표정으로 바꾸면서 장난을 친다)

우리: "아아나~, (아까부터, 아까부터 자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질 못하는 아빠가 안타까운듯 껴안은 아빠 품을 풀고는 진지하게 설명하려 한다)

"미러서어 너머졌따~ 든데! 짜든 선생님아~ 혼내졌따!,,

아빠: "어어쿠! 그랬짜~, (딸내미의 진지하기도 하고 썰썰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표정을 보며 한없이 행복해 한다)

엄마: (밥통에서 밥을 퍼 담으며 다소 화가난 듯 툭 끼어든다) "너는 가만히 있었어!, 같이 싸우지 않고!,,

(밥그릇을 상에 놓으며) "답뽀에도 그러면 같이 말어! 알았지!,, (근사한 작전 명령을 하달한다, 안심이 안돼 다시한번 상기 시키려는 듯) "요기 상쳐 봐! 아직도 짜죽이 남아 있잖아!,, (우리 이마를 만지며 확인 시켜준다)

"전에는 똑진인지 국진인지 하는 애가 오래 났잖아요 글썸,, (마냥 해헤 거리는 아빠의 즐거운 마음을 더욱 보게주듯 엄마도 덩달아 얘기 같은 엄살을 부린다)

(오늘도 무슨 상채기나 난건 아닌지 요리조리 확인을 한다)

우리: (엄마의 손놀림에 따라 요리조리 돌려지다가 아빠 옆에 놓여있는 요상 아릇한 것을 빨건 한다) ". . . ?, ,

"아빠 든데에 요더 뭐야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묻는다)

아빠: "으음! 우리 공주님 선물!,, (드디어 아빠의 진가를 발휘하는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으로 씩씩하게 대답한다)

우리: "내 선물!,, (기분이 무지 좋은 듯 다시한번 굳게굳게 확인하며 선물을 잡는다)

"아빠아 든데에~ 아빠다 나 사랑해서 선물 사 준다야~, (아빠 얼굴을 뽀뽀히 쳐다보며 진지하게 묻는다)

아빠: "그러엄! 우리 공주님을 사랑해서 사 주는 거예요~, (딸내미 하는 말이 기가 찰 정도로 당혹스럽고 우습고 대견해서 그만 지하철에서 천원하는 고깃거 하나 사주면서 엄청 타내고 있는 쭉쓰러움도 있고서는 덩달아 진지해지며 아바마마가 된 듯, 진짜 공주님을 보살피는 용맹스런 임금님이 된다)

"자아~요길 요렇게 늘르고 요렇게 놓으면!,, (우리 한테 반아다 자상하게 시범을 보인다)

(짜구려 천으로 감싸져 있는 쫄꼬만 강아지 장난감이, 옆구리의 태옆이 돌아가지 기계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왕! 왕!, 짧고 높은 카랑카랑 소리를 토해낸다)

아빠: (방 바닥에서 파닥파닥 거리는 강아지를 잡으며 한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는다) "자아~ 우리가 직접 해봐요~,

우리: "아빠 든데에~, (아빠 품에 안기며 또 뭔가를 급히 말하려는 듯 늘 입에 붙은 말버릇이 튀어나온다)

아빠: "자아 요렇게~, (우리의 손을 잡아다다가 같이 태업을 돌리고선 방바닥에 강아지를 놓는다)

(왕왕! 왕왕! 역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강아지는 착실히 움직인다)

우리: “. . . . .” (방바닥의 강아지를 잠시동안 바라보다가 뭔가를 말하려는 듯 서둘러 두손으로 잡는다) “아빠아~든데에~”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해야자~” (밥상위에 숟가락 젓가락을 챙겨 놓으며 우리에게 엄중히 타이른다)

[사실, 단돈 천원이 아쉬운 때이긴 하지만 귀여운 딸내미에게 싸구려일망정 선물이라도 사갖고오는 아빠의 따스함이 진정으로 고마워 엄마 자신도 ‘여보 고마와요’ 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아빠 도맛습니다아~” (고개를 숙여 대중 감사의 표시를 끝내곤 곧 바로 쳐들어간다)

“아빠 든데에~ 진짜 강아지야~ 진짜강아지~사주라! 응?..”

[끝내 하고 싶던 말을 기어코 해 내고야 말았다는 시원함 마음이 속도도, 발음도 평상시 보다 훨씬 또박또박히 나오게 합니다, 얼굴 표정 또한, 근사하게 잡는것을 물론 잊지 않고서 말합니다]

아빠: “. . . . .” (느닷없는 진짜 강아지 타령에 아무말도 못하고 그저, 짐짓 불쌍히 보이려고 애쓰는 우리의 얼굴만 쳐다 본다)

엄마: “. . . ?” (엄마도 순간 당황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당황한 아빠 대신 얼른 대답한다) “응응~ 그건 이답에~우리가 더 크면 사줄께에~. . . . .”

(딱 잘라 말해 버리게 안쓰러웠던지 맞마디 보충설명을 한다) “우리가 더 커서 학교에 들어가면 ~ 그 때 사줄께에~”

우리: “하또에 들어다면?” ( 끝을 높여 확인을 해본다)

엄마: “응응, 우리가~ 백비암, 백비암, 또 백비암 자고나면 학교에 가는 가야~” (다행히 근사한 이유를 달수 있어 끝내 안타깝지만 명백히 못을 박아 확실히 해두려 한다)

우리: “. . . . .” (언제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하여간에 엄청 자고나야지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더더욱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있다)

[어쩔수 없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딸에 대한 엄마로서의 최선의 배려와 또 자기 스스로를 향한 굳은 다짐으로써 달래봅니다]

엄마: “그때 가면 교육 사줄께에~, 자아 밥먹자아~”

우리: (그냥 밥먹기에는 못내 아쉬운듯) “뱃뱃암, 뱃뱃암, 또 뱃뱃암!..” (확인을 해본다)

엄마: “. . . . .” (대답도 안 한다)

우리: “에이잉 지름 사졌쓰면 조텃는데에~” (더욱 안스러운 표정과 억양으로 끝까지 버텨본다)

엄마: “. . . . .” (밥을 먹다가 얼굴에 약간 힘을 주며 우리를 쳐다본다)

아빠: “. . . 으음. . .” (도저히 딸내미가 안스러워 못참겠다는 듯이 신음한다)

“이답에 아빠가 돈 미안히 벌어서 진짜 우리집으로 이사하면 그뻘! 세마리 사줄께~” (주책 없이 또 부끄러움과 자신의 처지도 잊고선 떠벌리고 만다)

우리: “아빠 든데에~ 언제에~” (약간 활기가 돌며 금방 되 묻는다)

“뱃뱃암 자도나면?” (역시 확인 하는것도 잊지 않는다)

아빠: “. . . . .” (말을 뱉고 나니 비로소 자신의 처지가 명백한 채로 들어나게 됨을 깨닫고는 이제 밥맛 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갑갑한 상태가 되어 아무말도 못한다)

우리: “에이잉 지름 이졌으면 조텃는데에~” (아빠의 굳어진 얼굴이 미안스러운지 말끝을 흐리부지 하지만 그래도 더 버텨본다)

엄마: “자아 그만하고 우리야 밥 먹자아~” (언제 돈이란걸 벌어나고 하고 생각하는지 힘이 빠빠진 채 화도 내지 않고 그저 가만히 수저를 들어 국을 떠 마신다)

[잠잠한 침묵이 감간 계속됩니다, 볼륨이 고장난 TV화면 처럼 세사람은 그저 밥상앞에 앉아 판토미암하는 배우가 됩니다]

우리: (숟가락도 안들고는 강아지만 만지작 만지작 거린다)

아빠: “알아 봤소?”, (아내에게 축쳐진 어조로 묻는다)

엄마: “조합 사람들은 요번 주까지는 꼭 나가야 된다고 그러구요. . . , 주인집 아저씨는 더 버텨볼 생각아래요~” (역시 힘없는 목소리도 받는다)

아빠: “어쨌건 우리도 방을 빨리 정해 봐야지아~” (혼자말 처럼 젓가락질을 하며 뇌까린다)

. . . . .

“당신 식당 근처엔 더 없데?”, (아내 얼굴을 쳐다보며 제발~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몸에 벤 절망의 그림자는 끝내 지우지 못하며 묻는다)

엄마: “에에~, 저 아래쪽 버스 종점 있는데 있죠? 거긴 삼백에 십오만 아래요~”

. . . . .

“그 정도면 어떻게 해볼 수 있긴 한데. . . , 그리고 당신 공장도 버스 한번만 타면 되고, 우리 벨딩도 가까워서 좋긴 좋은데. . . ,

[어쨌거나 지금 돼는 돈으로는 그나마 적절한 곳이라는 생각이 앞서긴 하나. . . , 그러나 우리 때문에. . . , ]

엄마: “근데. . , 차도 많고 사고도 자주 난데요 그리고 집이 상가 건물 옥상 집이래요,, (어느새 강아지 타령은 새까맣게 잊은 듯이 밥도 안먹고 장난감을 요리조리 만지작 거리는 우리를 쳐다보며 힘없이 말한다)

[하나 밖에 없는 딸내미 때문에 울켜 걱정이 앞서지며 별 뾰족한 수도 없지만 선뜻 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빠: “. . . . .” (아무것도 못느끼며 그냥 하는 수없이 떠놓고 있는 것 처럼 꾸역꾸역 그저 숟가락만 밥에서 입으로, 국으로 움직인다)

엄마: “우리야 밥 먹고 놀자아,, (생선 발린 것을 우리 밥그릇에 갖다 놓으며 말 한다)

[우리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재미 없는 말만 하는 엄마, 아버지한테 덩달아 주눅이 들어서는 진짜 강아지 타령도 때려쳐우고 새 장난감에 열중하다가 이제야 신경써주는 엄마한테, 반갑기도 하고 알뜰기도 한지 대뜸 평소에 딱지도 않던 김치 타령을 해봅니다]

우리: “답치!.. (손가락으로 맵게 생긴 김치를 가리킨다)  
 엄마: “그건 맵워~ 그냥 고기에 먹자아 자아~.. (직접 숟가락에 떠서 먹여준다)  
 우리: (입에 밥을 한 가득 담은 채로 국을 가리킨다) “두욱!..  
 엄마: “자아~.. (국도 한 숟가락 떠서 먹여준다)

[세식구가 오손도손 밥을 먹습니다, 아니 막막하기만 한 어깨눌람에 오손도손이란 말은 벌써 사라져 버렸습니다]  
 (숟가락 달그락 거리는 소리, 강아지가 왕왕 거리는 소리만이 들린다, 스틸 사진위로 . . .)

(아빠, 옷장에 기대어 TV를 보며 담배를 피고 있다.)

우리, 앉아서 그림책의 강아지 그림을 마저 색칠하고 있다. 눈과 귀도 마저 다 칠해져간다)

우리: (앉아서 열심히 색칠을 하다가 고개를 빼꼼히 들면서 아빠에게 묻는다) “아빠아 든데 뱃 뺨뺨, 뱃뺨뺨, 또 뱃뺨뺨 자면 진짜 강아지 사주는 데야?..”

아빠: “으응~.. (TV를 보며 간성으로 대답한다)

(TV드라마의 주인공이 근사한 품으로 소파에 탁 앉았다. . . . .)

(뺨죽뺨죽 나온 선들이 진짜 강아지 털 처럼 보드랍게 느껴지며 눈과 귀도 마저 칠해져, 이전 진짜로 어엿한 색색깔의 복슬 강아지가 된다.)

그 강아지 그림이 살아나서 털복숭이 이쁜 강아지가 된다.

[거긴 새싹방 같은 곳은 없오?]

강아지가 왕왕! 짹으며 완전히 살아난다

[일사분기에 이십만원이 넘는데요]

아쪽 자쪽으로 폴짝! 폴짝! 뛰면서 우리쪽으로 다가온다.

[옥상 난간도 제대로 안됐을지도 몰라요~]

작은 강아지가 우리 품에 안기며, 우리는 활짝 웃는다.

[7지구 사람들은 데모를 한데요]

왕왕 짹으며 꼬리치며 우리의 얼굴을 핥는다.

[다친 사람은 없네?]

우리도 신이나서 같이 뛰어 다닌다, 근사한 풀밭도 있고 숲도 있고 또 그림책에 나오는 예쁜장 한 작은 기와집도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엄마, 아빠가 활짝 웃으며 서있다.

[우리들도 좀 어떻게 해서. . . 우리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 했으면 좋겠는데. . . .]

아빠, 엄마를 향해 강아지랑, 왕왕! 깔깔! 대면서 뛰어간다,

“뱃뺨뺨~, 뱃뺨뺨~, 또 뱃뺨뺨 자도나면. . . . .”

[끝]

## 제목; “사람이 아니 올시다, 짐승이 아니 올시다,”

\*제1부; “그날 이후, 세상은 대사에 거꾸러 졌다.”

- 채 덕신.

S#1; 방안.

(그리 넓지 않은 한옥집 방안에 늙은 노인이 반듯이 누워 있다, 열은 홀아불을 덮고서)

N-해마다 그 자긱자긱한 8월이 가까와지면 괜히 더 팔다리가 녹작자긱하고 몸이 쭈셔다야~

(천장을 향해 반듯이 놓여있는 얼굴위로 안듯 보기에 죽음꽃같은 사커면 짜죽들이 많이 파어 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이미 꽃이라고 볼수 없는, 불에 심하게 덴것 같은 보기 흉한 상처들일 뿐이다, 벌써부터 싹어 있는 고목위를 난삽하게 뒤덮고 있는 독버섯 처럼. )

N-뻘속 마다마디로 갈갈이 찬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야~ 내가 왼쪽 애길 안하고 있으면 그저 의사덜은 술담배를 줄이려야~. . . , 흐

(노인의 얼굴에는, 금방이라도 사그라들것 같은 작은 숨소리와 더불어 통한의 과거를 회상하는 씩씩함이, 가는 창별을 말아제치는 짙은 어두움으로 드리워져 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이 잡힌다)

N-술은 마시고 싶어도 못먹는 주제에 말아어~ 후우~ 이 고통을 누가 알겠소~

(꺄불의 정한 흥터와 움푹 들어간 눈동자가 지나온 처절한 세월을 증명하듯 좁고 어두운 토글 처럼 깊숙히 박혀있다)

S#2; 배 밑창.

(덜컹! 갑판덮개가 열린다, 직렬하는 태양빛이 강렬하게 터진다. 환상처럼, 아렴풋이 여기저기 십자가가 고어진다. 십자가들은 굵은 쇳창살로 변한다. 그 위로 각반을 댄 일본식 군화가 락친다. 저벅 저벅, 착!, 뭉라뭉라라고 하는 군기 잡힌 목소리가 아래로 내려 쏘인다. )

S#3; 일본 오오사까 항, 1943년, 여름.

(총검을 든 일본 군인들에 지사에 따라 배에서 내려져 수용소로 끌려간다)

\*지문: 유 춘성 (柳春成), 1924년 충남 괴산 출생, 일본명;

1945년 오오사까에서 피폭 당함, 현재 서울 00동 거주, 아들 내외와 살고 있음  
 온전한 신체적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고 하루종일 누워있거나 가끔 햇볕을 쬐러 마당에 나와있는 정도임.

S#4; 오오사까 근처 해군시설부 측량대.

(일본 군인들의 감시하에, 군수물자 같은 짐짝들을 한국인 징용자들이 나르고 있다)

N-43년도에, 그러니까 열아홉에 끌려와선, 오오사까 바로 옆 구래시 해군시설부에서 일하게 됐어사유~, 쪽 거기만 있었됐쥬~

S#5 ; 합바 (장용 한국인 숙소)

(합바에서 나와 동료 몇명과 함께 총검을 맨 일본군의 안술 하에 역전을 향해 투박투박 걸어간다)

N-그날 따라 느닷없이 히로시마 출장명령을 받고 역전에 집합하기로 되었는데,

S#6 ; 구레역, 역전광장.

(군인들과 여기저기서 착출된듯한 장용자들이 곳곳에서 정열해 있거나 걸어오고있다. 늘 그렇듯이 각겨 보이고 절도있는 행동들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사람이 많이 모여있긴 하지만 오히려 아무도 없는 무인도처럼 고요하기만 하다)

N-시각을 확인 하느라 시계를 들여다 본 순간!

(조그만 역사(驛舎) 위에 걸린 낡은 시계가 9시를 못미쳐 가리키고 있다. 순간, 섬광이 번쩍! 한다. 시계바늘이 쭈글쭈글, 시계전체가 삼하계 왜곡되어진다. 마치 바로 지금 이순간 이후의 시간들은 쭈그러지고, 뒤틀러 질것임을 말해주듯아~)

눈앞이 캄캄해진다. 아내, 화악! 하고 강렬한 열기가 몰아친다. 열풍에 몸이 휘청거려 쓰러질듯 우르르 밀려난다. 아악! )

“앗 뜨거워!.. (바로 앞에서 누가 온몸에 불을 지르는 것만 같은 뜨거움에 놀라 소리친다)  
(온몸에 불이 붙은 줄 알고 허겁지겁 옷도리를 벗어 던진다)

S#7 ; 폭발 후 도망 장면.

(우선 아무대고 불길을 피해 달아나야 된다는 생각에 무작정 마구 뛰다.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여기저기 부딪히며 뛰고, 넘어지고, 걷고, 기면서 결국 어느 집안가 허름한 대문을 밀치며 안으로 쓰러진다, 서서히 캄캄해 진다)

S#8 ; 안방, 일본식 다다미 방.

(온통 캄캄하다)

(가카스로 눈을 반쯤 떠 본다, 쪼그라진 얼굴의 할머니가 자신을 쳐다보며 일본말로 뭐라고 주얼대고 있다)

N-그날 밤, 어느 할머니의 간호를 받았던것 같은데,

온 몸에 껌테기가 거의 다 벗겨진 것 같고, 얼굴도 온통진물 투성이라 눈을 제대로 뜰수가 없었사유~

(손바닥으로 여기저기 조심스럽게 사이알살 아픔을 참아가며 만져본다. 그러다가 쓰라림에 더 이상 못견디듯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정신을 잃는다) “아아~, (부르르고 다카진 입술너머로 누런 액체로 범벅이 된 아가리가 시커멓게 드러난다. 캄캄함이 그 깊숙히 들어간다)

(또 한번, 심한 갈증에 눈을 떠본다, 할머니는 없고 낮은 천장만 보인다)

“무우~울, 무우~울, (힘 없는 목소리로 애원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어간다, 낮은 천장이 출렁 거린다, 출렁임이 잦아 들며 그림자를 또렷히 반사하는 우물속에 맑은 물이 된다, 동그랗게 우물입구 모양으로 잘려진 파란 하늘 위로 두레박의 긴 줄이 뱀처럼 뒤뉘리며 떨어진다, 투옥)

(입술의 뭔가 축축한 기운이 느껴진다,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는 어릴적 모습의 자기 자신이 두레박 채로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갑자기 ‘물을 먹으면 안돼야~’ 라는 엄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머리가 들썩 올라올 정도로 깜짝 놀라며 눈을 뜬다, 할머니의 얼굴이 보인다, 재플에 지쳐 풀썩 다다마에 머릴 떨어진다)

“물을 먹으면 안됩니다, 아까도 다른사람들이 물을 먹자마자 죽는걸 봤습니다.. (조금전의 할머니가 젖은 수건으로 입술을 적서 주며 안스럽게 바라본다, 타이르듯 계속 지껄인다)

(다시 정신을 잃어간다, 할머니의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로 바뀐다. . . , ‘춘상이 참아야 돼야아~ 안그럼 나는 죽어야아~)

S#9 ; 근처 학교 <대피소 겸 병원>

(허연 수건 같은 걸로 입을 가린 군인의 얼굴이 이상하고 무섭게 보인다)

(장갑을 낀 군인 둘이 어깨와 다리를 들고 그를 옮긴다, 들것에 실려 세상은 온통 출렁거린다)

N-다음 날, 다행히 무슨 트럭에 실려 병원인지 학교인지 하는대로 가게 됐는데~

(좌우로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거나, 엎어져 있고 신음소리가 아우성을 치고 있다)

N-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고 고름색의 냄새가 무지 썩어왔사유~

(교실 한쪽 구석에 비스듬히 놓여진다, 파란색 칠판이 장면으로 들어서며 주위에 누워 있거나 앉아있는 사람들의 물 달라는 애원 소리들 으으~ 하는 신음소리에 섞어 알아들을수 없는 우우웅웅 거림으로 반사시킨다)

(사방을 반사되며 튀겨지는 그 신음 소리들은 이제 칠판위에 걸린 일장기의 피땀 줄기들에 찌어억쩍 감겨 먹힌다)

N-물 한모금 못 먹고, 아니 실은 엄니 생각이 나서 이를 꼭물고 악착같이 참았사유~ 이대로 죽기는 정말 싫었사유~

(다카져 허연 살갓이 드러난 아랫입술 위로 윗니빨이 겹쳐지며 주름이 깊게 패인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떨어지며 눈 앞이 캄캄해진다)

(줄줄줄줄~ ‘하하하 칼칼칼’, 개울가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근채, 어릴적 모습의 자기 자신이 칼칼거리며 여동생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다)

“아아~, (쓰러린건지, 시원한건지 모르는 감촉에 눈을 뜨며 신음소리를 낸다)

(수건으로 입을 가린 군인과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몸 여기저기에 가제를 대고 있다, 이를 악물며 쓰라림을 참는다, 여학생이 안타까운듯 살짝 쳐다본다)

N-고 약간의 시원함에 잘하면 살아날수 있을것 같았사유~ 악착같이 살아서 동생을 꼭 다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사유~

(다소 희망사린 눈빛으로 여학생을 바라본다, 아니 오빠의 아픔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누이동생

의 축축한 눈망울을 본다, 울상으로 서있는 누이동생의 여린 장갱이를 타고 시원스레 퍼런 냇물이 흘러간다, 줄줄줄. . .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밝게 웃고 있다. 물게 탄 마숫가루를 입에 대준다. 그게 아주 맛있었는지, 이제 확실히 살아날 수 있을것 같은 개운함 때문인지 씩씩 웃어 보인다)

N-그렇게 이삼일 인가가 지난후에야 겨우, 지대로 눈을 뜰수가 있었사유~

(달랑, 누런 속곳만 걸친 채 남의 다리마냥 양갈래로 투옥 늘어져 있는 두다리가 보인다. 여기 저기 누라까리한 형겅쪼가리 같은 것들이 덮혀있고 주변 살갗엔 핏딱진지 고름딱진지 범벅이 되어 있다. 그 얽은 가제 밑으로 누런색의 고름이 흥건히 배어나와 있다. 그속에서. . . .  
뭔가가 꾸물꾸물 거린다. )

(입을 찌억 벌린 채 눈을 뚱그랗게 뜬다)

N-그게 바로 구, 구데기였슈~구데기. . .

(허벅지에 댄 가제위로 구더기가 꼬물꼬물 가어나온다, 벌써 나와있는 것도 여기저기서 폼지락 폼지락 거린다)

N-사램이 아니었사유~ 내살덩이가 아니었사유~

(고개가 하늘을 향해 젖혀진다, 치켜들린 턱이 바르르 떨린다)

(나무로 된 마루바닥위에 한 뭉텅이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데고있고 사방으로도 여러마리가 널부러져 있다. 그 옆으로 사체인지 산사람의 것인지 추옥 늘어진 다리 한쪽이 놓여있다.

쪼물락쪼물락거리는 구더기들 위로 날아빠진 군화의 발굽이 무지막지하게 뒹긴다, 쿵! 이내 지팡이 같은 나무작대기 끝이 마루바닥을 경쾌히 울린다, 탁!

쿵! 탁! 쿵! 탁! 의 엇갈린 박자는 힘없이, 긴복도를 따라 널부러진 살덩이들 사이로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질질 끌며 나간다)

N-구데길 파내고 씻고 하면서 한 한달 보름정도 지내니까 조금 나아졌사유~ 그래도 두 다리는 계속 썩어가는것 같았사유~ 금방이라도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할 것 같았사유~

S#10; 폐허가 된 거리

(폭탄에 폐허가 된 거리의 모습이 앙상하게 빼만 드러낸 채 처참하게 일그러져있다,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그 사이 사이를 두다리 질질 끌며 걸어간다)

N-겨우 일어설수 있었을땐 거기에서도 조센진이라고 쫓겨나서 합숙소로 돌아가게 됐었사유~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불에 탄 집들, 허물어져 탕빈 공터들, 쓰러진 전산주둥이 하나들 옆으로 느릿느릿 지나쳐간다.

그 속도가 점점 줄더니 이내 멈춘다. '후우~' 하고 쓰러진 집터위에 앉는다)

N-다리에 비해 상반신이 빨리 좋아진걸 보고 그때 웃통을 벗어버린게 그나마 ভাল 일이란 생각이 들었사유~ 안그랬음 위에도 다썩어서 분명 죽구 말았을 거라고유~ 흐! 미친놈!

S#11; 다시 피폭 당하던 날 해냈을 때.

(허겁지겁 웃통을 벗는다)

N-근데 이제 알고보니 그게 더 나쁜 거였사유~ 차라리. . . .

(정신없이 헤메인다. 주위 사람들도 아우성이고 불붙은 가동에 깔려 죽는 사람, 강물속에 뛰어 드는 사람, 완전 아수라장이다)

N-그때 한참 여기저기 헤메는 데 뭔가 따뜻한 빗물이 내렸었사유~

(눈앞이 안보여 엉금엉금 골목길을 더듬어 가어간다, 툭, 토독, 후두둑, 이때 빗물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한다)

(등짝이고 어디고 간에 아직도 '자글자글 타 들어가는 듯함 속에서 순간 뜨금 한다, 그러나 이내 무릎팍을 땅에 박고선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며 비를 흠뻑 받는다, 입을 한없이 벌려 벌컥벌컥 먹기도 한다. 꼭 감은 두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으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줄줄 따라 흐른다)

N-시원했사유~ 잠시 살아나는 듯 했사유~

(비는 계속 뿌러지며, 다소나마 뜨거움과 아픔을 식혀주는 상쾌함에 겨워 이미 녹초가 다된 몸뚱이를 건디지 못하고 아제는 완전히 대자로 눕는다, 하늘을 향해. )

N-흐, 망할놈의 검은 비! 살갗에 짹짹 달라붙던 그것이, 바루 그놈이 이날 이때까지 내 살덩이를 파먹고 있는 거사유~ 아주 깊숙히 깊숙히 백해서 말아쥌~ 지 새끼덜 한테 까지두요~

(계속 드러누운 채 비를 맞고 있다, 얼굴엔 그저 편한 듯 지저진 온몸의 해갈을 즐기는 듯, 지쳐 힘 없는 표정속에 얇은 미소가 배킨다. 빗줄기는 날카로운 쇠창살이 되어 온몸을 향해 내려쬐인다, 계속해서. 퍽! 퍽! 퍽!)

S#12; 측량대 내 장용 한국인 숙소

(언제나 높다란 초소와 날카로운 경계 철조망, 거대한 물자창고들 사이에서 홀로 숨죽여 누워져 그저 조용히 서로서로 참담한 신세들을 알아주던 합숙소의 낮고 어두운 자방이. . . .

이제는, 마찬가지로 땅바닥으로 누워 지저져있을 뿐인 일본놈들의 창고, 초소, 철조망들속에서 전과는 다른 이상아릇한 기분으로 그동안의 악몽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묘약이 된다. )

(탁! 툭! 탁! 툭! 나무지팡이에 의지한 채, 판자로 디더진 합숙소 문앞으로 들어선다. 문을 연다)

S#13; 합숙소 내부.

(방금전의 통제함은 팍 물린 어금니 사이에서 박살이 난다)

(그곳 역시 자기와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한 상태의 사람들이 가제, 붕대 한쪽지 덧대지도 못한채, 신음소리만을 토해내는 아수라장이다. 마루바닥 여기저기 이미 죽어 썩어가는 살덩이들이 놓여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은 사람 몇명이 몰수건 같은 것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의 옆에 쪼그려 앉아있다)

(우두커니 서있는 옆으로 사체 하나가 들려 나간다, 구더기에 놀라 툭썩 주저앉는다)

N-차라리 그때 그냥 강물에 꼬꾸라지든, 불가등에 맞아죽던 그냥 동료들과 같이 돼져버렸어야 되는데~



(멍하니 바라본다. 널부러져 있는 살덩이들을, 아니 죽을 고생을 같이 겪던, 꼭 살아서 고향에 함께 돌아가자던, 서로서로 상처난 곳을 활아주던 동료들을 바라본다)

S#14; 귀국선.

N-늦게나마 비로소 해방의 기쁜소식을 접하게 됐자유~

(어두침침한 배 밑바닥 3등칸 마루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다른 한편으로 가족을 잃거나 몸을 다쳐 고통에 겨워하는 슬픔에 그저 지친 모습으로 복작 복작 뒤엉켜 있다)

N-그 저주 받은 땅에선 한사라도 더 있고 싶지가 않았사유~ 그래서 채 아물지도 않은 다리를 끌고 귀국선을 탔자유~

(가등에 기대 앉은 채, 그래도 겨우 고향에 돌아갈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두 나라에 남아있는 쓰라림을 다소 덮어주는듯 평안히, 건너편 동그란 창문 너머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N-배를 타야 비로소 그때 그 불폭탄이 원자폭탄이란 걸 알았사유~ 비록 내 다리가 아프고 보기 싫게 되지만 그래도 일본놈덜을 끝장내게 했다는 것에 기분은 좋았사유~ , 딴 사람들도 다 그랬사유~ 그 불폭탄 때문에 비로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수 있게 된것이라구유~

S#15; 부산항 앞, 배 갑판 위.

(내 나라 갈매기들의 끼룩 거리는 소리 너머로 저만치 항구의 모습이 확연히 보인다 여러사람들이 이미 뻑뻑히 갑판위로 나와서는 환호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

( '아~ 엄니!' 라는 짧은 소리를 내며 감격하고 있다)

(배에서 내리면서 크게 심호흡을 해본다, 기쁜 표정으로. )

S#16; 부산 거리.

(해방의 설레임과 이수선함이 바글바글 움직이는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듯 하다, 그 사이사이를 두리번 두리번거리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사람을 반갑게 만난다)

N-귀국선에서의 부푼 가슴은 고향 땅을 채 밟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사유~

(넓은 저고리를 입고 등에 지개를 맨, 사십중반으로 보이는 아저씨에게 넓죽 절을 한다. 그 사람도, 놀랍고 반가움에 답씩 손을 잡는다)

S#17; 허름스름한 판자집 주막.

(밝은 아직도 오후 햇살이 한층 남아있었으나 시장통 어귀의 주막집 안쪽은 호롱불을 켜야할 정도로 어두침침 하다)

(주인 아주머니의 쪼글쪼글한 손마디가 유리통을 열어젖히고 심자에 불을 명킨다. 이내 뽕작!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 한줄기를 길게 토해낸다. 개어넌 줄기 끝 하름한 벽위로 술을 따르는 그 략자 한 쌍이 길게 느리워 진다. )

(까칠까칠한 얼굴의 고향 아저씨가 대접의 술을 발컹발컹 들이 마시곤 뭔가 미안하고 째뼌한듯 입가에 묻은 막걸리를 조용히 쓰윽 닦아낸다)

N-부산 바다에서 우연히 고향 아저씨를 만났자유~, 근디 엄니 아버지 두분 모두 부역나가 흠 더마에 파묻혀 다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슈~, 동생들도 뿔뿔히 흩어지고 . . ,

(막걸리를 받아 놓은 작은 소반에 머털 쳐박고 흐느낀다)

S#18; 다시 맨 첫장면의 방 안.

(누워있는 늙은 노인의 두 눈은 그대로 천장을, 아니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 얼굴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며 눈을 질끔 감는다) ‘

N-또 다시 혼자였슈~ . . , 발어먹을 놈의 전쟁!

(감은 두눈에서 한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귀밑 흉터를 타고 배개를 적신다)

S#19; 부둣가

(옥수수 푸대 같은 까칠까칠한 마대 사루가 깊은 주름을 지으며 쥐어뜯기듯 굵은 손마디에 잡힌다, '으앗싸!' 푸대를 어깨에 걸치곤 휘청 한다. 결코 작지 않은 허우대에도 불구하고 깡깡 대며 힘겹게 걷는다)

N-그렇게도 돌아가고 싶던 그리운 고향은 이제 영영~ 한국에서나 일본땅에서나 낸 신세는 마 찬가지였슈~

(털썩! 징그런 과물단지를 떨쳐벌라듯 황급히 떨구어 놓구선 뒤이어 쫓아오는 다른 노동자의 굵은 어깨를 스쳐 기이인 숨을 몰아쉬며 돌아간다, 후우~ )

S#20; 부둣가 노동자 숙소 안.

(판자대기로 지은 합숙소 안은 일본 땅, 징용 끌려가 있을 때와 똑같이 양편 마루로 갈라져 허름한 이불가지와 옷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퀘퀘한 작은 웅덩이일 뿐이다)

N-그 일본놈들의 술한 매질 속에서도 거뜬히 견뎌냈던 나였지만 귀국한 후에는 쉬이 피로하고 곧잘 앓아눕게 됐사유~

(아쪽 편 마루 중간 쯤에 뱀 허물 벗어놓은 듯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음직한 누대기가 고스란히 젖혀져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 옆으로, 땀범벅이 된 채 일어나 앉아 사발의 물을 발컹발컹 마신다. '크으호~' )

(찌그러진 주전자 옆으로 양푼 사발이 신경질적으로 떨쳐진다)

(들러진 턱 밑의 까칠한 수염 밑으로 커다란 목젓이 차켜 올라간다. 그러곤 이내 고개를 떨군다)

N-뭘든지 하다못해 감기약이라도 정량의 세배나 먹지 않음 효력이 없었사유~

(뭔가 통증에 겨워서라기 보다는 무언지 알수 없는 답답함과 무기력감에 얼굴이 온통 주름 투성이가 되도록 기이알게 인상을 쓴다)

S#21 ; 부산역전.

( '배에액!' 기차가 들어온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성대며 북적거린다, 일본식 낡은 역사(驛舍)의 개찰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 나온다. )  
(유춘성, 우르르 몰려나오는 사람들 틈에서 한 깔끔한 부인네 뒤를 따라 자개위에 큰 붓다리를 엮고서 쫓아나온다, 그 좋았던 허우대는 이제 점점 구부정해져서 비로소 그의 쪽 마른 얼굴과 어울려 보인다)

(여자 손님께 절을 하고 돈을 받는다, 내려놓은 자개에 기대어 숨을 갈게 쉽다)

N-그 불폭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지요~

(이제 일어나 다시 역전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간다, 무슨 짐이라도 올려져 있는 듯, 빈 자개를 두 어깨에 꼭 끼운 채, 다소 앞으로 쏠린 자세로 자개위에 몸동아리의 무게를 분담시키며 찬찬히 걸어간다. 여기저기 바글바글 거리는 사람들 틈으로, 그렇게 바둥바둥 대는 삶 속으로 파묻힌다)

S#22 ; 초라한 판자집.

(달동네 판자집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그 중 분명 너댓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듯한, 조금 커 보이는 판자집.

대문 바로 옆 좁은 마당을 끼고 있는 문간방이 초라해 보인긴 하지만 뿔마루 위의 잘 정돈된 부엌세간 나부랭이와 어울려 세뎌 살림의 아가자기한 맛이 나는 듯도 한다)

N-어쨌든 고생고생하며 귀국한지 7년 만에 겨우 결혼도 하게 됐고 아이도 갖게 됐지요~

(창호지로 문풍지를 댄 조그마한 방문 앞에서 초조한 듯 좁은 마당을 아리저리 서성 거린다. 뭔가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얼굴 표정은 아주 밝고 두 눈은 오래간만의 희망으로 반짝 들떠 있다)

( '덜렁!' 덜렁 문이 열리며 동네 할머니가 무명찬에 싼 뭔가를 두손에 보듬고 나온다)

(눈을 톱그렇게 뜨고 놀란다, 서서히 무릎이 땅으로 내려 앉으며 멍하니 열려진 방문 안쪽을 바라본다)

N-아이가 가냥 죽은 채로 나왔다는 것이었슈~ 울음소리 한번 못내고 말이지~. . .

(잠시 방문 앞에 버티어 섰던 할머니의 누런 바선발이 뿔마루에서 내려와 딱 박힌 무릎팍 옆을 스쳐간다.

투옥! 힘없이 늘어진 팔 한쪽이 떨거진다, 그 진동이 남아 있는듯 가느다란 떨림이 갈게 남아 맴돈다)

N-할아버질 따라서 이름도 지어났었는데. . . .

S#23 ; 시장바닥.

(복작복작 거리던 열기가 한물 지나가고 거의 파장 때가 다 될 무렵, 노상에 광주리를 놓고 비스듬히 주저앉아 있던, 배가 이만큼 부른 아주머니가 힘겹게 빈 광주리를 들고 일어선다)

N-다음해 두번째 이마를 갖게 됐지요~ 이번에는 이름은 미리 짓지 않고,

S#24 ; 공사장.

(2층짜리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미장이 일을 하고 있다, 여전히 허약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 몸으로 열심히 시멘트 반죽을 만들고 있다)

N-우선 어떻게해서든 돈을 마련해서 병원이라는 딸 가기로 했었지요~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 내벽에 걸쭉하니 반죽된 시멘트 한 뭉탱이를 굵은 흙손에 담아 적! 하니 발라놓고 싸아~ 뭉겐다. 흙손이 지나간 자리엔 아주 매끈하게 시멘트가 엉겨 붙는다)

붙는다)

S#25 ; 병원.

(그리 크지 않은 개인병원. 000산부인과라는 길죽한 간판이 여염집 출입문 같이 수수한 유리문 앞에 걸려 있다)

(배가 산 만큼 부른 아내를 엮고 달려가 허겁지겁 유리문을 연다, 드르륵)

(병원 안, 커튼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응애응애~ 거리는 애기 우는 소리에 기뻐한다, 두손을 합장하고 두눈을 감아 하늘로 고개를 쳐들고 감사의 기도를 한다)

(카툰이 젓혀지며 의사가 나온다,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부끄럽게 쳐다본다)

(000 0000 000. . . , 말소리는 안들리고 찹찹한 표정의 얼굴에 빙긱빙긱 거리는 압압하게 생긴 가는 입술 만 보인다)

N-선천성 소아마비!

(고개가 스프르 숙여진다, 뭐라뭐라고 의사는 계속 자껄이고,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당혹감에 바보처럼, 귀머거리처럼 그저 천천히 허리를 굽산굽신 거린다)

S#26 ; 문간방 안.

(아내가 어린아기를 안고서 젓을 먹이고 있다.

다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박찬 웃음을 머금은 채 아내와 자식을 바라보고 있다. 아내도 똑 같은 심정인지 젓을 물고 늘어진 찌꺼마한 아기의 조동이를 은근히 쳐다보고 있다)

(응애~응애~ 갑자기 아기가 마구 울어대진다, 아내가 연신 달랜다)

(울음을 달래느라 애쓰는 아내와 아기를, 잠깐 놀래긴 했지만 늘 그래왔던것 처럼 큰 걱정없이 바라보며 살짝 웃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소리가 딱 끊인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며 뚱그랗게 눈을 뜬다, 뭔가 섬뜩한 기분에 가슴이 덜컥 내려 앉으며 일 본놈들에게 군화발로 명차끝을 채이던 것과 같이 숨이 꽉 막혀 온다)

(아내가 몇번 더 흔들어 본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되며 더욱 심하게 흔들어 낸다)

(아내쪽으로 다가가 허겁지겁 보자기로부터 아기를 꺼낸다. 입을 찌억 벌리며 놀란다. 팔이 부르르 떨린다, 방어리처럼 으으으~ 거린다)

(하얗게 변한 아내가 옆으로 스러진다)

(아이를 두손에 잡고선 입을 부비고, 눈까풀을 벗겨보고, 바람도 잡아넣고 하다가 코를 아기 볼에 박고 엉엉 소리내어 운다)

N-결국 그 놈도 세달을 못넘기고 어느 날 자에미 품에서 앙앙 마구 울부짖다가 갑자기 조용해 기 조용해 지더니 죽어버렸슈~

S#27 ; 뒷마루.

(방문이 열려있는 채 방안에는 아내가 누워있고 옆방 할머니 한분이 앉아있다.

그 밖으로 찌그러진 주전자와 보이며 주발이 놓여있다. 옆방 아저씨가 그 옆으로 뭔가 위로를 하려는 듯 조마조마하게 앉아 술을 들이 마신다, 크으~ 짧게 추임새를 하며 아직도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걸터 앉아있는 사람에게 자아~ 하며 호기있게 술을 따라 권한다)

(멍청한 표정으로 주욱 넘겨 버린다, 질질 흘러 넘쳐나는 것도 아랑곳 않고, 투우욱! 고개를 제자리에 놓는다, 반쪽 열려진 입가에 침인지 술인지 주르르 흘러 내린다)

N-왜 그런건자~뭣 때문에 그런건자~

(멍한 표정이 갑자기 격해지며 두 눈에 시뻘정게 핏대가 서기 시작한다, 우액! 우액! 앞으로 고꾸라질듯 몸이 심하게 뒤틀린다)

N-그 발어먹을 놈의 원자폭탄 뺨에 그런건자~

(찌억 벌려 차켜올려진 얼굴 위, 코와 입에서 흘러나오던 찹찹한 액체가 주우욱 갈게 줄을 그 어가며 아래로 젓어진다. 무릎을 땅에 쳐박고 두 팔로 팔 디딤하며 주저 않는다)

(방안에서 할머니가 뛰쳐나오고 옆방 아저씨는 아연질색 그저 가만히 있다)

N-도데체 어다가 어떻게 잘못 된건자~

(눈동자는 이제 흰자위만 남아 있다, 두손바닥으로 얼굴을 짓기며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도리질을 친다)

N-내 몸, 내 살덩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건 증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그리고 그건 그냥 답답증 때문만이 아니어유~ 지가 낳은 새끼덜을, 그것도 들썩이나 잡아 삼켜버리는 이 발어먹을 놈의 몸뚱이가 두렵고 무서워서. . . , 진짜로 무서웠슈~, 사람 잡아 먹는 과몰어~ 과몰. . . . ,

S#28 ; 조금 커보이는 중하병원 진찰실.

(대기실 안, 뚱그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사와 간호원이 엑스레이가 든 비닐봉투를 들고 들어오자 발떡 일어나 좇아간다)

“산상님 지발 좀 가르쳐 주셔유~ 워다가 워다가 잘못됐나유~ , (의사한테 매달린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유~ 속 시원히 가르쳐 줘유~ 지발 좀 고쳐주세유~. . . ,”

“에~에 걱정하지 마세요, 고쳐드릴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황하며 무마하느라 짹짹맨다) “아저씨아~ 더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 . , 아저씨아~ , (간호원도 옆에서 거든다)

“아저씨 이런다고 되는게 아녘요, 진정하시고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계속 매달리다가 갑자기 돌변한다,

웃통을 짹짹 찢어벗으며 흉터를 들어내 보이곤 다그쳐 악을 쓰며 발광한다)

“야 이 개새끼들아 내 돈내와~ 내 새끼들 내와~ 어다가 잘못된건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의사여!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사기꾼같은 새끼들아~ ,”

(무릎팍에 힘을 잃고 제 팔에 주저앉아 오염을 한다, 의사와 간호원이 잔뜩 겁에 질려 한쪽으로 몰려나 있다)

(이젠 완전히 팔이 죽은 어조로 그저 혼자 뇌칼일 뿐이다) “아이 개새끼들아~ 제발 좀 가르쳐줘~ 고칠수 있는 약을 쥐~ 내 새끼들 살려나야~.”

S#29; 병원 입구.

(여러사람이 다소 복잡하게 들락날락거리는 병원 현관 앞, 큰 유리문이 열리며 환카운을 입은 두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양쪽에 팔을 끼워 환자를 부축해 나온다, 떠다밀듯 손들을 놓자 퍽! 하고 또 다시 쓰러진다. 잠시 후 멍하니 일어나서 비틀비틀 힘없이 돌아간다)

N-의사덜은 그저 서울 큰 병원에 가봐야 알수 있다고만 하지 확실히 뺨뺨에 그런건지 모르겠다는 거였슈~ 아마도 원자폭탄을 가까이서 맞았다면 그것 뺨에 그런것 같다고 하면서 말아쥬~

S#30; 꿈.

(환자 수용소 마루바다, 사체처럼 자기 자신이 누워있다. 내놓아진 두 다리위로 살갓을 찢어내며 여기저기서 구더기들이 피기 시작한다.

방안, 온통 구더기 천지다. 구더기들이 점점 커지면서 강보에 싸인 아기를 꿈지럭 꿈지럭 잡아삼킨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에게도 온통 구더기 투성이다.

아내가 놀라 아악! 비명을 지르며 손을 내젓는데 점점 더 구더기로 덮혀질 뿐 수렁에 빠지듯 팔이 점차 점차 구더기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 가느다란 손가락만이 구더기같이 꿈틀꿈틀 대다가 멈춘다)

S#31; 방안.

(헉! 하고 발떡 일어난다. 뺨에 흠뻑 젖은 채 광한 두눈엔 산음소리가 가득찬다, 우~우~)

N-제 정신이 아니었사유~ 아니 완전히 미쳤었사유~

(아내가 수건으로 뺨을 닦아준다, 남편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저 우우우~산음소리만 내는 것에 설움이 더욱 복받치는지 왈카 쓸어 안는다)

N-취약 먹고 죽어버리지구~밤마다 울었사유~

(힘없이 파묻힌 고개 너머, 하늘 향한 아내의 두 눈에서 줄줄 눈물이 흐른다,

아내에 가슴속에 백혀 우우~ 가리기만 하는 광한 눈가에도 눈물이 맺힌다)

N-난 사렘이 아니었사유~

S#33; 맨 처음 장면의 방안.

(다 쪼그라들은 빼죽마른 손등이 눈가에 젖은 물기를 훔친다)

N-이런 고통을 누가 알겠슈~

(아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일어나 비스듬히 아들 품에 기대 앉는다.

며느리가 한약이들었는지 하얀 사기시발을 조심스럽게 앞으로 가져온다.

가는 두손으로 받아 마신다, 중간에 기쁜 숨을 내쉬며 한 차례 삼하고 다시 입을 댄다)

N-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남들은 몰라유~ 지들하고는 상관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 하쥬 (입가에 자욱을 내며 긴 한숨과 함께 뱉어진다, 후우~ 작은 손으로 꼭 쥐은 하얀수건이 입을 훔쳐 준다)

S#34; 달 동네 공터, 한적한 여름날 오후.

(따가운 햇살을 피해 판자집 담장 그늘에 쭈그러 앉아 어딘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동네 꼬마 아이들이 바로 앞 조그만 공터에서 뛰놀고 있다.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아저씨가 신경쓰이는지 할끔할끔 쳐다 보더니 아예 뭐라고 쭈근덕거리더니 아쪽으로 슬슬 몰려 온다)

“저기 문맹이 봐라! 문맹이! 미친년 볼까!” (손가락질까지 하며 놀려 댄다)

(싸늘거리는 소리에 비로소 죽은 자식 생각이 떨쳐져버린듯 눈을 껌뻍거리며 거리더니 후다닥 일어난다. 그러나 아이들은 여러번 해봤던 듯이 유유히 여유있게 슬슬 뒷걸음치며 재밌다고 깔깔거리다)

(갑자기 외양 소리를 지르며 옷통을 벗어 흉터를 드러내 놓고 쫓아간다)

(이제야 우루루 도망간다, 한 아이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넘어지고 만다. 다른 아이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고 그 아이만 잡힌다. 몹시 겁이 나는지 얼굴이 파래지며 파르르 땀)

(아이의 목을 우악스럽게 잡아다가 가슴에 흉터있는데로 가까이 잡아대려 한다. 아이가 질겁을 하고 발버둥치며 아망 소리내어 운다)

(찢어지는듯한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비로소 재정신이 돌아오는듯 아이의 목덜미를 놓아주고 털썩 주저 앉는다)

(후다닥 빠져나와 도망간다. 기다리던 아이들과 뒤도 안돌아보고 우르르 몰려간다)

N-부질없는 목숨이었쥬~ 살고 싶은 맘이 전혀 없었사유~

(도망하는 아이들을 바라본다)

S#35; 서울 번두리 판자촌.

(사궁창 같은 개천이 가늘게 흘러가고 있고 그 양옆으로 판자집들이 주욱 들어서 있다, 중간중간 긴 판대기를 걸쳐놓은 나무다리들이 가늘게 놓여있고 양편 둔덕위로 사람이 겨우 자날 정도의 좁은 통로가 초라한 판자대기 움집들 사이사이를 연결 시켜주고 있다)

N-이동네 저동네 옮겨다니면서 내친감에 서울까지 올라오게 됐사유~

(이편 판자대기 다리 너머 둔덕 배가에 조그만 닭장이 놓여있다,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떨어진 배춧밭을 닭에게 주고있다. ‘구구구구~’)

N-아내와 단들이 그저 우리들만의 아픔과 침묵속에 덮어두면서 조용히 살아갈수 밖에 없었사유

(제법 큰 암탉이 탁! 탁! 큰 부리로 몇번 쪼다가 이내 손끝에 달린 배춧잎을 철조망 안쪽으로 푸다닥 낚아챈다. 푸두둑, 푸드득 소리내며 여러마리가 몰려 미구 쪼아먹기 시작한다. 배춧잎은 완전히 쪼각쪼각 해진다)

N-아프면 아픈대로, 썩으면 썩는대로, 쥐어뜯기면 쥐어뜯는대로 그저 모든 걸 다아 맞기로 했어유~ 그렇게 사는데 좋았사유~ 그나마 조용하고 편했지유~  
(서서히 일어나 개천쪽으로 방향을 돌려 조금 아래편 풀밭으로 내려가 앉는다. 잠잔에 배춧잎만 낭 새파란 잡초들이 손아귀에 잡힌다. 뽕자작! 더러 뽕하고 더러 뜯긴 한줌 풀잎들이 개천가로 흩날리며 떨어진다)

N-우리에겐 더이상의 확실한 방법이 없었지유~  
(사궁창의 시커먼 불줄기들이 처박힌 쓰레기들을 돌아갈 때마다 서로 뒤엉켜 찢적찢적한 허연 거품들을 만들어내며 뽕글뽕글 흘러간다)

N-그저 확실한 것이라곤, 과산 촌구석에 살던 내가 일본놈덜한테 끌려가 남의 땅, 바루 히로 시마에 서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밭어덕을 늪의 목숨이 팔자가 나빠 그날 바루 안죽고 여 죽까지 끌려왔다는 것, 그것이 죽도록 원망스럽다는 것 뿐이었어유~  
(깨진 물바가지가 해골처럼 박혀있는 얇은 바닥 허벌려 드러내 놓기도 하며 거품 두어개씩 물고서 동네아귀들 슬그머니 돌아 흘러간다. . . , 땅속으로 처박혀 반쯤 들어난 콘크리트 요강으로, 그 어둡컴컴한 아카리로 주욱주욱 빨려 들어간다)

### S#36; 판자집 마당, 겨울밤.

(다 스러져 갈듯 비스듬히 밖으로 기대선 판자담 안쪽으로 작은 항아리들이 웅가증기 놓여있고 그위로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있다)  
(뽕드득, 뽕드득, 뽕드득. . . , 그 장독대를 따라 좁은 마당을 가로지르는 군화 발자욱이 지저분히 다져져 있다.  
바닥 밑창이 조금 벌어진 얼룩무늬 새마을화가 빈번히 왔다갔다 한다. 언젠가 그 옛날 어느날 처럼 또 한번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다)

N-그렇게 서울변두리에 처박혀서 4년을 보냈사유~, 그저 조용히, 평안히 말아쥬~  
(발소리가 멈춰지며 또렷히 들리는 애기 울음소리가, 진짜 살아숨쉬는 애기 울음소리가 응애~ 응애~ 얇은 창호지를 박차고 나와 달빛에 반짝이는 소복한 눈덩이에 튕겨지며 하늘높이 하늘높이 맴돌아 올라간다)

N-그해 겨울, 셋째놈을 야니 드디어 첫째놈을 낳게 됐사유~  
(눈물어린 두눈은 울려 퍼지는 소리를 쫓아 밤하늘 가느다란 별빛으로 올라선다)

### S#37; 방 안.

(허연 무명 보자기에 걸린 쪼그마한 핏덩이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곤 수시로 허연 수증기를 일

으키며 아이앙앙 울어깨끼고 있다. 꼭 감겨진 두 눈, 쪼그마한 콧구멍, 한껏 벌린 것이라곤 엄지 손가락 만한 입가위에, 지난 세월의 아픔들이 엄마 아빠의 새로운 희망의 불길로 녹아 흘러내리듯 갓 태어난 핏덩이는 사람들의 뜨거운 눈길위에 흥건히 젖어있다, '나무관새음 보살. . . ,')

N-기적이라고 생각했지유~ 그 지랄 같던 업보가 이제야 떨어지는가 했사유~ 대자대비하신 보살님이 새로운 희망을 담겨주신 것이라고구유~

(투박하고 쪼그라진 그의 두 손이 무명 보자기에 주름을 만들며 애기를 감싸든다. 다시한번 아까보다 더 크게 울어제킨다, 으아앙~으아앙~, 허허허. . . , 나무관새음보살. . . )

[끝]

\*후기;

위 작품은 원래 전체 1, 2부로 기획된 중편 이야기의 전반부로 장용으로 끌려가 파폭당한 한 장용인 가족의 삶을 그리고자 한것입니다.

제2부 『살어리, 살어리 랏다. . . 』에서는 유준성의 아들 (파폭2세대) 이 겪게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짧은날 어려운 가정형편과 군입대 신체검사를 계기로 발현되는 신체적 결함의 구체적 확인-그것은 죽은 자신의 형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자신도 곧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커다란 충격이었읍니다-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아버지라는 한 과물(?) 과의 갈등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또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앞으로 글 전체가 완성되면 다시 구성이 되겠지만 바로 지금 현재, 선천성 소아마비로 태어나 재활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는 자신의 아들 (유준성의 손자) 의 삶-미래의 자손들의 삶-까지 이어지는 시점 (현재) 에서 쓰여진것이며, 결국 원폭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의 가족사(史)를 통해 바람받고 살아온 사람들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와, 또한 가공할 핵폭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자기독백, 자기 절규의 내용인 것입니다.

# 참고로 위 시나리오는 특히 만화영화를 생각하며, 다소 무리로 보여질수도 있는 움직임의 맛을 전제로 나름대로, 그것을 살려보고자 한 것입니다.

# 제목 : 보람이의 하루

최 해옥

# 1

가방을 메고 도로를 따라 타박타박 걸어가는 보람이. 모습이 점점 가까워진다. 굳게 결심을 한 듯 비장한 얼굴

보람 : 「난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을거야. 엄마 아빠는 아람이만 예뻐하구. 이 다음에 엄마 아빠는 알게 될 거야. 야단만 맞던 보람이가 사실은 어떤 애였는지. 그리고 아람이 이녀석 항상 나를 골탕 먹었지. 넌 국물도 없다.」

어제 일을 생각하는 보람이 - 아람이와 보람이가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다. 아니 자전거를 타고 있는건 아람이고 보람이는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다.

보람 : 「야 이제 내가 탈 차례야」

아람 : 「싫어! 더 탈거야」

보람 : 「한아람! 안 내려와! 약속이 틀리잖아」

아람 : 「날 잡으면 용치」

자전거를 탄 채 달아나는 아람의 뒤를 보람이가 씩씩거리며 쫓아간다. 갑자기 뛰어 나노는 강아지를 피하려다 쓰러지는 아람이. 일어날 생각도 안하고 앉아서 엉엉 운다. 넘어진 아람이를 고스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다가오는 보람이.

이때 엄마가 길 모퉁이에서 나타나 울고 있는 아람이를 일으켜 세운다. 다친 데가 없는지 살펴보다가 보람이를 찌려본다.

엄마 : 「너는 형이라는게 동생이 자전거에 깔려 있는데 옆에서 웃고 있니?」

보람 : 「엄마,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람이가 먼저...」

엄마 : (소리를 지르며) 「그래 아람이가 좀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애가 아파서 우는데도 너는 옆에서 웃고 있어? 형이 동생을 잘 돌봐 줘야지」

보람 : (시무룩해진 보람이 '난 좃어운 앵가 아빠가 데려온 앵가'하고 돌아서서 혼자사 말로 중얼거린다) 「첫 엄마는 나만 미워해.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구.(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 보람) 그래. 내가 집을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는 엄마도 나를 좋아할 거야. 지금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집을 나가도 다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지」

# 2

다시 길을 걷는 보람이 역으로 향한다. 서울 가는 차표를 사는 보.. 역무원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듯하자 얼른 개찰구로 나간다. 서울역 도착 바쁜 듯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보람. 모든게 신기하고 좋아 보인다. 잠시 서 있던 보람이는 어딘가로 가야겠다고 작정한다. 아무 길이나 따라 걸으면서 정신없이 사상을 둘러본다. 서서히 지치는 보람이. 제과점의 빵을 쳐다보면서 침을 삼킨다. 문득 배가 고프다.

보람 : (지금쯤 집에서는 점심을 먹겠지?) 내가 가출했다는 걸 알까? 아람이 녀석은 내가 없어져서 좋아할 거야. 엄마 아빠는 말썽꾸러기가 없어졌다고 속 시원해 하시겠지.

(주머니를 뒤져보는 보람이. 천원짜리 2개. 백원짜리 다섯개.) 「2000원은 비상금으로 남겨 놔야지. 500원으로 빵을 사먹자. 저 빵은 비싸 보이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보람이를 쳐다본다.

아저씨 : 「너 혹시 집 나온 애 아니냐?」

보람 : 「아니예요. 할머니 댁에 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저씨 : 「그래? 집이 어딘데?」

보람 :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말랬어요」

아저씨 : 「아저씨네 집에 가지 않을래? 맛있는거 많이 줄께」

보람 : 「아네요. 엄마랑 동생이 지금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저씨 : 「허, 그녀석 참」

아저씨 가버린다. 계속 그 가게 앞에 앉아 있던 보람 빵을 사먹는다.

보람 : 「우유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치만 우유를 사면 차비가 모자라니... 차비? 집에 안 갈 거면서. 그래도 어쨌면 정말로 엄마랑 아람이가 기다릴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비상금으로 남겨 놔야 하나까 더 이상 쓰면 안돼」

다시 걷기 시작하는 보람이. 발걸음이 점점 느려진다. 생각없이 걷다 보니 다시 서울역 광장이다. 광장 한 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보람이 조금 쓸쓸해진다.

보람 :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나 같은 꼬마가 뭘 해서 돈을 번담. 그냥 집에 갈까? 그랬다가는 엄마한테 무지하게 매를 맞겠지. 오늘 학교도 안 갔으니...」

# 3

점점 날이 저문다. 주위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모두 집을 향해 가는 듯하다. 조금씩 추워진다. 보람이는 사람들 물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아빠도 지금쯤 퇴근하셨겠다. 엄마는 저녁 밥을 다 했을까? 아람이는 뭘 하고 있을까?

주변의 나무가 점점 커져 보인다. 사람들 물결 속에서 더욱 작아지는 보람이. 먼 불빛을 바라보다가 몸을 떠다.

보람 : 「우리 집에도 불을 켜겠지 집이 불빛이라도 쳐다보면 따뜻해질 것 같은데」 「돈은 이담에 커서 벌기로 하고 그냥 집에 갈까? 이제는 너무 춥고 배가 고프다. 식구들도 보고 싶고」

보람이 벌떡 일어난다.

보람 : '우리 집의 불이라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 4

집 어귀의 골목길을 걷는 보람이. 집의 불빛이 보이는 곳에서 걸음을 멈춘다.  
다시 걷는 보람이. 골목을 면한 방에서 불빛과 함께 말소리가 새어 나온다.

엄마 : '애가 도대체 어딜 갔을까? 벌써 8인데... 아휴 정말 이 어린 것이'

아람 : '엄마, 형아 왜 안와?'

아빠 : '갈 만한 데는 다 연락을 했는데...'

엄마 : '애가 혹시 어디 먼 데로 간 게 아닐까요?'

아빠 : '허 참, 큰일이네'

아람 : '엄마, 형아 오면 저녁 먹을거지?'

엄마 : '그래 아람아, 조금만 참아라. 형은 금방 올거야'

'여보, 경찰서에 한번 더 가봅시다'

엄마, 아빠, 아람 대문 앞에서 보람을 본다.

엄마 : '아니, 거기 웅크리고 있는게 보람이 아니야?'

'애! 보람아!'

아빠 : '보람아!'

아람 : '형아야!'

엄마 : '어딜 갔었니? 그래, 지금이라도 왔으니 됐다. 어서 씻고 밥먹자. 배고프겠구나'

보람 : '아빠, 저 오늘 학교 안 갔어요'

아빠 : '그래, 알고 있다. 어서 들어가자'

아람 : '형, 자전거 어디서 타고 왔어?'

보람 : '뭐야?'

집안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식구들 크게 웃는다.

# 금 니 빨

백 정 숙

# 1. 기차안

7월말의 일요일. 경원선 통일호 안에서는 털킹거리는 기차소리에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요란하다. 일반인보다는 휴가를 즐기기에 위한 청년들과 MT를 떠나는 대학생들로 꽉찼다.

대학생인듯한 무리들이 사정없이 기타를 두드리며 부는 노래소리가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다. 노래는 최신 유행가요와 운동권가요가 골고루 들려온다.

비오듯 흐르는 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을 하며 열심히 빼리고, 두들겨 맞는 소리가 가관이다.

화장실 가까운 문쪽으로 거의 20석 이상을 차지한 무리가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무리인듯 하다. 그 무리들은 6~10명 선으로 동아리를 이루며 저마다 양쪽손의 엄질을 내밀고 주먹을 붙여 쥐며 숫자를 외치고 있다.

경 희; 빛! (빛이라는 숫자를 외침과 동시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은 사람이 네명이 된다)

아하! 빨리 손대! 자~ (경희가 함께 게임하던 사람들을  
배리기 위해 오른손바닥을 입에 대며 "후~" 하고 분다)

짹! 짹! 짹! ... (경희를 제외한 광수, 도균, 병욱, 진태, 순덕  
종선 등이 경희의 손바닥에 손등을 맞으면서 손을 빼는  
사람,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 비명을 지르는 사람 등 가지  
각색이다)

진 태; 야, 야. 경희야! 너는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힘이 세냐?

병 욱; 맞어. 재가 빼리면 애교가 아니라 구타라니깐!

아휴~ 아퍼!

경 희; 치~ 무슨 남자들이 재재하게 엄살이야! 순덕이는 아뭏소  
리도 안하잖아.

누가 꼭 걸리라고 했나?

광 수; 야, 야. 꺾어진 50하고 이제 갓 스물 영계하고 인격이  
같냐? 체통없이 이것을 뭐하러 잘하고 있냐? 흠, 흠!

(자못 위엄을 갖추듯이 눈을 굴리며 말한다. 순간 일동은  
와하하하 웃는다. 광수도 푸하하하 웃는다. 광수의 웃음에  
앞이빨의 해 박은 금니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인다. 이것  
을 놓치지 않는 경희)

경 희; 어이구~ 체통 있으신 광수오빠 금니빨은 우리 악덕싸장하  
고 똑같네! (고개를 숙 내밀며) 어디, 악덕싸장 한번 할터  
여?

광 수; 싸장? 조오~치! 네말대로 나도 한번 이 금니빨덕에 악

덕인지 선택인지 좋으니까 짜장되면 좋겠다.  
내가 짜장되면 너는 비서 시켜줄테니 이젠 이 빠리는 게  
임은 그만하자. 아퍼 죽~겠다. 벌써 7번은 계속 맛았을  
꺼야.

(순간, 기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선반에 있던 침낭이 “툭” 떨어진다. 서서 게임하던 사람, 졸던 사람,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한  
군데로 쏠리고, 차내 방송이 나온다. “열차, 선로 관계로 잠시 서  
행 운전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진 태; 무슨 선로 관계야! 동일호보다 비싼 무궁화나 썬마을이  
먼저 지나가게 양보하는 거지. 에구~돈없으면 다~소용없다  
니까!

병 옥; 엇따, 근디 이게 뭐랑가? (떨어진 침낭을 발밑에서 주워들  
며) 내 돌위에 (머리를 쭉 내밀며)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반  
돌에 떨어졌으면 완존히 채석장 될 뻔했네, 잉~.

진 태; 어쭈구리! 맹월이 네 머리만 돌이면 됐지, 왜 남의 컴퓨  
터 (자기 머리를 탁탁치며) 까지 돌로 취급하나?

병 옥; 으잉? 너는 그럼 돌도 아니고 쇠란 말이여?  
썬네~썬!

(일동 하하하 웃는다)

경 희; (병옥이 일어나서 침낭을 선반에 올려 놓는걸 보며)  
근태 저건 누구꺼야?

도 균; 광수형꺼야.

경 희; 광수오빠 짐이 아까도 보니까 많던데, 저것도 광수오빠 꺼  
야? (광수, 씨익 웃는다. 역시 금니빨이 번쩍)  
이이쿠~두번 놀러다니면 오빠 살림, 다~거덜나겠다.

병 옥; 야, 야. 그게 다~오늘 놀러간다고 노친네가 (광수를 보며  
고갯짓을 한다) 장만한 가보란다, 가보!

아, 함부로 멘지러 말아라~잉?

도 균; (다함께 활짝 웃을때 광수의 버쩍이는 금니빨을 유난히  
쳐다본다)

## #2. 유원지-저녁무렵

오후 7시쯤의 유원지는 아직 저녁이라는 느낌이 적다. 한쪽에는  
절벽이 있고 절벽 위로는 지대가 높은 차길이다. 자동차가 여전히  
더 먼길 떠나는 행락객들로 거북이 걸음이다. 6층짜리 빌딩 높이  
의 절벽 밑에는 강줄기가 흐른다.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이 강물의  
물방울과 함께 도균의 얼굴을 스친다.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아,  
환하지만 한낮의 찌는 태양도 한풀 꺾였다. 강줄기 옆에는 자갈밭  
이 길게 늘어져 있다. 낮에는 하얗지만 지금은 약간 회색빛을 띠  
는 자갈들을 원색의 울긋불긋한 텐트들이 한치라도 더 가려야 된  
다는 듯 뻑뻑히 들어차 있다.

여전히 물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되고 저마다 밥때를 본능  
적으로 찾아먹듯 버너의에 올려놓은 코펠에서는 부글 부글 찌개가  
끓고, 그 사이도 못 기다리겠는지 사람들은 노래에, 게임에 소란스

럽다.

도균은 오래간만의 야외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에 자못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천천히 돌아본다. 저녁을 먹은뒤  
라 훨씬 여유로운 얼굴이다. 아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차  
근차근 들어온다. 자갈밭 뒤로는 논들이 있는데 띄엄띄엄 간이 화  
장실도 눈에 띈다. 화장실 앞에는 사람들이 죽 늘어서 있다. 저마  
다 무척 분주하게 움직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야학일행들도 섞여서  
움직거리는것 같다. 남들보다 서둘러서 저녁을 먹어 치우니 좀 한  
가로운듯 일행들은 흩어져서 자유시간을 만끽한다. 도균의 눈에 아  
주 새것인 텐트가 눈에 띄었다. 광수형의 텐트를 설치한 것이다.  
자기가 없어서 두개의 텐트만 설치했는데, 마침 옆자리가 비어서  
충분세라 야학생들은 광수형의 새 텐트를 펼치고야 만 것이다. 담  
배를 한대 꺼내 피워 물고 내뿜는 연기 사이로 광수형의 모습이  
보인다. 텐트안에서 짐정리를 했나보다. 만족한듯 시종 미소면 얼굴  
로 텐트 밖으로 나오는 광수형을, 야학교사인 해정이가 부르는 소  
리가 들렸다.

벌써 한쪽에선 해정이의 주도하에 실것이를 하는 팀 이외의 사  
람들은 동그라미 대오로 앉아서 노래부르기의 향유에 배풀어 졌다.  
아주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끄는 해정이는 혼자 판짓하는 사람은  
못 놔두겠다는 식으로 세수를 하고 있는 종선이까지도 뒷덜미를  
잡고 끌고 온다.

이번엔 내 차례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해정의  
눈빛이 도균의 눈과 마주쳤다. 도균은 그런 자리에선 중요한 역할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으레 도균은 고개를 끄덕인다. 도균은 기타  
맨으로서 그날의 악사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태가 숫가락을 들고 서서 노래를 부른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노래하는 진태와 춤을 추는 해정과 병옥을 쳐다보고  
깔깔대며 웃느라고 정신없다.

“치엇 싸라양에 눈물 흘릴때에 그때엔 저영말 철부지였다.

파업 투쟁영에 세싸양 알아왔다 노도옹자 새 썬싸양~”

진태의 노래소리에 맞춰 해정과 병옥인는 서로 손을 끼고 돌기  
도하고 첫사랑이라는 부분에서는 검지 손가락을 오른손, 왼손을 번  
갈아 들어올리곤 하면서 흐드러지게 춤을 춘다.

“나는 너는 진짜야 노도옹자!” 라면서 주먹을 한바탕 허공을 향  
해 내뻗으며 노래와 춤이 끝났다. 순간 일행은 “와~” 하면서 일시  
에 함성을 지른다. 도균도 기타를 마구 흔들며 환호를 보냈다.

해 정; (숨을 헐떡이며 원 안에 들어서서 다음 순서 진행을 하  
기에 여념이 없다)

병옥이 너는 살살돌려야지 나 허리 아퍼 죽겠다. (일행은  
또한번 배를 잡고 웃는다)

자아~그럼 분위기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한반도가 자랑하  
는 세계적인 살림꾼, 김!광!수 씨를 소개 합니다.

(광수를 향해 손을 내밀자, 일동은 우와~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친다. 광수는 조금 빼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숙이  
고 손으로 머리를 긁는다. 양옆에 앉았던 경희와 도균이



자꾸 찌르며 일어서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안일어서는  
광수를 보며 이를 놓칠세라 해정은 손뼉을 치며  
자아~ 살려, 살려, 광수형 살려! (다함께 해정을 따라서  
손뼉을 치며 살려, 살려, 광수형 살려! 를 반복한다)  
광 수; (멋지게 일어서자 일동은 또다시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친다)  
흡! 흡! (두 손을 허리에다 두고 눈을 감으며 얼굴이 벌  
개지고 심호흡을 한다)  
“진재영 같은 바암 이일으을— 마아 치고오 난—  
새벽 쓰으린 가슴 위로 차안 쏘주를 붓는다아—”  
(병욱이 “오잉?” 하며 놀라자 도균은 “윗” 하며 주의를  
주고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도균은 아주 흡족한 듯이  
씨익—웃고는 다시 기타 반주를 조심스럽게 치기 시작한다  
.)

### #3. 유원지—다음날 아침

약 10시쯤 되었을까. 해가 서서히 달궈져 뜨거운 김을 내뿜으  
려고 한다. 텐트 밖에서는 모닥불의 재가 쌓여있는 주변으로 밤을  
새운 광수와 도균. 그리고 자다가 다시 동참한 야학생들 다섯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텐트 안에서자던 병욱이가 노랫소리에  
잠을 깨고 텐트 지퍼를 열고 나오며  
병 욱; 아니, 노친네들이 한잠도 안자고 지금까지 노래를 부르는거  
여? 어젯밤 그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실라니.  
광 수; 맨날 자는잠을 이런데까지 와서 자나?  
지금이 몇신데 말이야.  
(노래부르는 팀의 옆에서는 남자 야학생들 여섯명이 공놀이를 하  
고있다. 연식이와 상원이를 비롯한 20살짜리 동갑들은 역시 앉아  
있는것 보다는 뛰는걸 훨씬 좋아한다. 병욱이도 텐트에서 나오자  
마자 노래팀에 끼려다가 20살 남자아이들에게로 간다.)  
병 욱; 역시 젊은이들은 달라.  
너들은 잠좀 잤나?  
상 원; 그려. 4시간쯤 잤을꺼여.  
근디, 너는 웬 코를 그렇게 골아 샐나? 내가 너뺨에 못  
잤다는거 아니냐.  
연 식; 그려. 다신 저놈 옆에서 자나봐라.  
코만 고냐? 이갈지, 발을 내 배위에 척척 올리질 않나!  
병 욱; 음, (갑자기 가슴을 만지며 꼬꾸라지는 흥내를 낸다)  
너들이 나의 허를 찌르는구나. (상원, 연식, 병욱의 머리를  
쥐어 박는다. 병욱, 금방 표정이 달라지며)  
야, 근디 너들 이따가 해정이 누나하고 경희한테는 절대로  
나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잉?  
그 두사람이 방송국아니냐, 만일에 알려지면...  
(머리를 감싸며 우는 흥내를 낸다) 나의 사회, 정치적 생  
명은 끝장이다!

(연식, 상원, 기가 막힌다는 듯이 공으로 병욱을 치자, 병  
욱은 공을 받아서 자연스레 다시 살인배구가 시작된다)  
(한편, 광수가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도균을 부르는 소리가 난다)  
광 수; 도균아, (물가에 앉아 있던 도균에게 광수는 물을 끼얹는  
다.)  
도 균; 아, 차거. 형, 도전하는거요?  
(도균도 물속으로 뉘다 들어가며 물싸움을 한다. 광수는  
서서히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도균은 따라가다가 광수가  
너무 멀리 가자 손짓을 한다)  
(입에다 손을 대며 큰소리로 부른다. 물소리 때문에 잘  
의사소동이 안되는 듯)  
형! 그만가요!  
(순간 광수가 수영을 하며 가다가 물속으로 잠겨버린다)  
어? 장난하지 말아요. 내가 졌어. 빨리 나와요! (계속 크  
게 소리친다. 다시 광수가 물위에 올라 왔다가 “어!” 하  
며 입을 벌리자 광수의 금니빨이 햇빛에 반사되며 번쩍이  
는 광채를 내자 도균은 빨리 다가가서 광수를 구해야 된  
다는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도 금니빨의 광채에 고개를 돌  
린다. 그러나 잠시후 아무런 소리도 안들리고 물살도 잠  
잠해진 것을 느끼며 도균은 표정이 굳어진다)  
광수형! 광수형! (광수가 있던 자리로 헤엄쳐 왔지만 도  
균은 광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공놀이를 하던 남자아이들  
이 이광경을 보고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왔다. 도균은 수영  
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들을 보는 순간 다  
리가 풀려 미끄러진다. 연식이와 상원이가 겹싸게 물속으로  
잠수하며 광수를 찾는다. 도균은 병욱이가 부축해서 물밖으  
로 나왔다. 10분, 15분이 지나도 연식이와 상원이는 광  
수를 찾지 못했다. 야학생들 모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자갈밭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했다. 도균이 전문구조대를  
불러와서 본격적인 수색작업이 시작되었다.)  
상 원; (도균을 보며) 형, 15분이 지났어요. 아무래도...  
(도균은 아무말도 없다)  
경 희; (상원의 말을 듣고 갑자기 참았던 울음이 터진다)  
광수오빠... 흑, 흑, 흑 (옆에 있던 해정이 아무런 표정없이  
너무나 담담하게 경희를 안으며)  
해 정; 괜잡아! 아무일 없을꺼야. 울지 말어.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안으며 “어떻게해, 광수오빠!” 를 연발하며  
점점 울기 시작한다. 남자들은 담배들을 피우며 물속만 주시하고  
있다. 마침내 구조대원이 찾았다고 손짓을 했다. 그러나 시간은 약  
30분이 지난 후였다. 도균은 해정에게 여자아이들을 한쪽으로 몰  
으라고 지시한다. 시신을 보지 못하게 하지 위해서. 해정도 고개를  
끄덕하며 텐트뒤로 여자들을 데리고 간다. 병욱이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  
병 욱; (목소리만) 아이고~광수형. 광수형! (몹시 서럽게 울어대는  
병욱이의 목소리를 이어서 다른 아이들도 흐느끼는 소리가